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81호

Wednesday, July 31, 2024 A

미국 대선, 설부른 예측보다 치밀한 대응 전략이 먼저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 특별기고

미국 대선(11월 5일)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교체론을 촉발한 6월 27일 첫 TV 토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암살 위기를 모면하고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유세와 공화당 후보 지명, 바이든 대통령의 7월 21일 전격적인 후보 사퇴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초대형 변수들이 쏟아지면서 미국 대선 국면이 미증유의 세계 제로 상태로 들어섰다.

총격 사건 이후 공화당은 바이든 사퇴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실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공격의 초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을 막을 수 있다

는 희망으로 고조된 열기가 당내에서 뜨겁게 느껴진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속속 해리스 지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선언 불과 이틀 만에 후보 선출에 충분한 지지(대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했다.

그동안 담보하던 후원금도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대선권 도전 선언 1주일 만에 2억 달러(약 2764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았을 정도다. 위스콘신주에서 개최된 첫 대중 집회에서 해리스는 경제 정책, 노조 문제, 낙태 이슈 등 정책적 측면에서 트럼프 후보와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범죄자로 몰아붙여 지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예측 빚나갔던 1992년과 2016년 대선



오는 11월에 치르는 미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는 구도로 사실상 재편됐다. [AP=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세론'을 이어 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후보 교체라는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포석으로 대선 국면을 뒤집을 것인가. 아직은 대선 결과를 선불리 예측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필자는 1992년과 2016년 두 차례 워싱턴 현지에서 미국 대선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두

선거에 공통점이 있었다. 당초 예측이 크게 빚나갔다는 점이다. 1992년 초반에는 대부분 전문가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낙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때문에 유력한 민주당 후보들은 아예 출마를 피하는 분위기였다. 2016년 대선 때는 투표 전날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가 당

연시됐다. 그러나 전혀 다른 투표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옆엔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혼재

미국 대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한·미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

난 4년간 경험한 한·미 관계는 상당 부분 연속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까.

먼저 한·미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트럼프 후보는 암살 기도 이후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 통합과 거리가 멀었다. 정적에 대한 신랄한 공격과 함께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한 경제적 내셔널리즘, 동맹에 대한 깊은 불신감, 거기에 더해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전체주의적 지도자들과의 접근 의지 등 대한민국을 긴장시킬 내용으로 점철된 연설이었다.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미대사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8면 '특별기고' 로 이어집니다

김정은, 푸틴 만난 뒤 “중국 눈치 보지 말라”

주중 북한 외교관들에 '1호 지시' 불법입수·첩보수집 등 허용 해석성



이동을 제한하는 등 중국에 대한 반발 행동으로 옮기는 분위기다.

익명을 원한 북수의 대북 소식통은 30일 “최근 주중 북한 공관에 ‘중국 눈치 볼 것 없다’는 김정은의 지시가 담긴 포치(공지)가 내려왔다”며 “현지에선 당분간 북·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1호 포치'가 내려온 건 이달이라고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은 게 지난달 19일인데, 그 후 이뤄진 조치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 2면 '김정은' 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는 즐겁게 결과엔 쿨하게 파리 휘젓는 영코리아”



양궁 남자 리커브 단체전 우승을 이끈 2004년생 김제덕(왼쪽)과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 금메달리스트 2005년생 오예진. [뉴시스·연합]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대회 초반 순항하고 있다. 한국의 돌풍은 2000년대에 태어난 젊은 선수들, 즉 '영 코리아(Young Korea)'가 주도하고 있다.

사격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2위를 차지해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박하준과 금지현은 2000년생 동갑내기다.

김효경·피주영·고봉준 기자
▶ 12면 '영코리아' 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평양시장서 위안화 사용 막아... 중국영화 시청도 금지”

▶ 1면 '김정은'에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활동해도 괜찮다는 허가를 김정은이 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해외 공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불법 밀수, 현금·사치품 조달, 첩보 수집 등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북·중 이상 기류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을 과격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이후부터 포착되고 있다. 불법 군사 거래를 축으로 한 김정은과 푸틴의 밀월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북·중·러 연합의 일원처럼 보일 생각이 없다'는 데 가깝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긴장 관리에 합의하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여 등을 통해 한·일과 관계 개선을 피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중국에 김정은이 2018년 5월 중국 다롄(大連) 방문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발자국 동판'을 지난 5월 제거했다(중양일보 6월 11일자 1·5면). 이달 초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공동선언을 채택하자 그날 밤 군사정찰위성 2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 내에서 중국과 '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화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동향도 나타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 당국이 화교의 거주지 이동을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화교 가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중 반발 노골화하는 김정은 중국쌀 수입량도 10분의 1로 줄여 중국 '김정은 발자국' 제거에 이어 27일 전승절엔 중국대사 이례적 불참 "양국 이해관계 맞아야 관계 회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산책을 하며 답소를 나눴던 다롄 외곽 휴양지에 설치된 양 정상 발자국 동판(왼쪽)과 동판이 철거된 모습. [사진 대북소식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입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6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도발하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찬성하고 제재 이행에 동참했다. 당시에도 북한은 자국 내 화교의 통행증 발급을 제한했다.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위안화 결제도 일부 막혔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민은 "기존에는 평양 내 시장에서 위안화 결제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2월 발행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장마당에서 유통된 화폐 중 위안화가 차지한 비율은 68.4%로, 북한 원화(25.7%)의 두 배를 넘어섰다. 외부 사상 유입을 막기 위해 주민의

한류(韓流) 접촉을 차단해 온 북한 당국이 최근에는 중류(中流)까지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주민과 군인을 대상으로 중국 영화 시청을 금지했다"며 "중국 영화가 담긴 저장 매체를 압수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관영 방송의 외화 코너에선 중국 영화를 방영하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

공식 행사에서도 양측은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북한이 지난 27일 밤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한 6·25전쟁 상징 종대 행진 행사에 왕야진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29일 보도했다.

북·중 교역 규모도 급감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은 571만 3000달러(약 8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39만2000달러(약 739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했다.

오정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반미 노선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이라며 "중국이 대북제재 무력화나 군사기술 지원 같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양국 관계는 당분간 소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북·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양국 관계는 언제든 급

격히 회복될 수 있다. 실제 2016~2017년 제재 국면에서 사이가 소원해진 양국은 2018년 들어 북·미 정상회담 국면이 펼쳐지자 다시 밀착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26일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에 앞서 6·25전쟁 참전 중국군을 기념하는 우의탑을 방문해 중국과의 우의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이 한 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승리의 7·27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 대승"이라며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냇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북, 미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

신원식 국방장관, 블룸버그 인터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9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11월 5일)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도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새로운) 미 행정부에 대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 대선 직전이나 이후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러 협력과 관련해 "북한은 1만2000개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면서 "이는 포탄으로 치면 최대 560만 발 분량"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은 6월 인터뷰에선 최대 480만 발이라고 추정했는데, 최근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계속 건네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신 장관은 또 "러시아는 로켓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재래식 무기 현대

화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차후에 이런 기술이 북한으로 어떻게 이전되고, 실제 북한 무기 체계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전차나 전투기 등 관련 기술 개량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한·미·일 국방 당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와 관련해 구체적인 작전 예규(SOP)를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SOP는 각 부대가 실전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작전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28일 도쿄에서 첫 3국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정례화 등을 명시한 국방 당국 간 첫 문서다. 이유경 기자

워싱턴 날씨 (°F)

1일(목)	93~75	4일(일)	90~73
2일(금)	95~74	5일(월)	92~71
3일(토)	91~73	6일(화)	90~71

7월 31일(수) 95~75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PENDING \$660,000
전체 마루/부엌/화장실 리모델링 집

싱글홈 지하 벤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5 in 1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미국, '홈리스' 대란...사상 최대

돈도 버는 '일하는 홈리스' 등장 주거비용 충당 못해 홈리스 전락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나 주거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일하는 홈리스'가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홈리스 기록을 세우고 있다.

각 주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근 1년새 텍사스주 홈리스는 61%, 로드 아일랜드는 35%, 테네시는 20% 증가했다.

최근 새롭게 홈리스로 전락한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 혹은 중산층 임금을 받고 있지만, 도심지역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일정한 주거공간 없이 자신의 차량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 샌프란시스코에 자료에 의해 올해 미국의 홈리스는 65만3104명으로 2015년보다 23% 증가했다. 이 기간 홈리스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보다

도 크게 올라버린 주거비용에 있다.

최근 시카고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가장 큰 경제적 고민은 주거비용, 2위는 음식가격, 3위는 개스 가격, 4위는 헬스케어 비용, 5위는 학자금 용자였다.

하버드대학 연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렌트 세입자의 1/4인 1210만명이 총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납부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들이 언제든지 '돈버는 홈리스'로 전락하는 수 있는 예비군단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전국평균 아파트 월렌트비는 1218달러였으나 현재는 2054달러에 이른다.

평범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부실한 건강보험 플랜을 지니고 있을 경우 암 수술 경비 등으로 지니고 있던 모든 여분의 자산을 소비한 후 홈리스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하는 홈리스 대부분은 푸드 스탬프(SNAP) 수혜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렌트비나 자가주택 모기지 미납으로 퇴거조치를 당하고 크레딧 카드 연체대금 미납 등으로 크레딧 점수가 크게 낮아져 경제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욱재 기자

AP 시험 디지털로 본다

2025년 5월부터 적용 일부는 종이시험 유지



대학 입학시험 중 하나이자 대학 과목 학점 이수 인정 제도인 AP시험이 디지털 시험으로 바뀐다.

AP시험 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지난 25일 오는 2025년 5월부터 28개 AP 과목 시험을 종이 시험에서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트레버 패커 칼리지보드 부회장 겸 AP 시험 총책임자는 이날 "종이 시험은 시험 문제 유출, 부정행위 등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전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시험은 보안 뿐만 아니라 과정 간소화, 접근성 용이, 시험 환경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응시생은 블루북(Blueboo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P시험을 치르게 된다.

다. 단, 수학과 과학, 경제학 등 일부 과목 시험 중 그래프나 기호 작성성이 필요한 주관식 문제 답안은 종이 시험지에 작성할 수 있다. 또 오디오 시험(듣기, 말하기 등)이 포함된 과목은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고 종이 시험을 유지한다. 대부분의 언어 과목이 이에 포함되지만 AP 중국어와 일본어 과목은 제외됐다.

AP시험 디지털 전환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칼리지보드 웹사이트(allaccess.collegeboar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워싱턴이 타들어 간다"

워싱턴 가뭄 주의보 '비상' 세차 제한, 샤워도 5분 이내로

워싱턴지역정부연합회(MWCOG)가 가뭄주의보를 내리고 자발적인 절수 권고령을 하달했다.

당국에서는 세차와 잔디 물주기 등을 제한하고 샤워 시간도 5분 이내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지적 호우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지역이 매우 극심한 가뭄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주의보는 워싱턴 지역 600만명의 식수원 담당 구역에 내려졌다.

MWCOG는 "조만간 각 지역정부 상수도 당국이 수도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수준으로 상수원이 말라가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아껴써야 할 단계에 이르고 말았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지역 주요 상수원인 포도맥강

과 그 지류에 인접한 상수원 저수지는 아직까지 적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해갈이 되지 않는다면 상수원 적정 수위 미달 경보와 함께 가뭄주의보가 가뭄경보로 격상될 수 있다.

가뭄경보가 내려지면 각 지역정부는 강제 제한 급수에 들어가게 된다. 연방 해양대기청(NOAA) 산하 기상예측센터는 포도맥강 상수원 저수지의 95%가 예년 평균치에 미달하는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두 달 사이 가뭄이 극심해 현재 상수원 표고는 60일 전보다 4인치나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MWCOG는 최악의 가뭄사태에 대비해 1980년대 포도맥강 주변에 건설한 비상 식수 탱크 세곳에 보관 중인 용수를 각 지역정부 상수원에 공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세용 기자



"오늘 밤하늘서 오로라 찾아봐요"

31일 밤, 워싱턴 오로라 현상 기후변화로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

최근 미국 고위도 지역에서 자기폭풍(Geomagnetic Storm)이 강화되면서 워싱턴 지역에서도 오로라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29일 워싱턴 지역 곳곳에서 오로라가 관측됐으며 31일 혹은 다음달 초까지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해양대기청(NOAA)산하 우주 날씨예측센터(SWPC)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오로라 발생지역을 알려주고 있다. 이 사이트에 의하면, 31일 워싱턴 지역은 오로라 관측 지대의 끝에 위치해 있다.

오로라는 주로 북위 65도 이상의 북극권 등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자기폭풍이 태양에 의해 접화해 그 세력을 넓히면서 북위 50도 아래에서도 목격되며, 세력이 더욱 강화되면 중위

도 지역으로 훨씬 내려오게 된다.

오로라 강도는 KP 인덱스로 표현되는데, 관측가능한 지수는 7에서 9 사이이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지역에서 11월 중순, 12월 하순 경에도 불규칙하게 오로라 현상을 목격할 수 있으나 최근 태양 자기폭풍이 강화되면서 한여름 오로라 관측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상학자들은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온 오로라 현상이 기후변화에 의한 부작용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OMNI에게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퍼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의, 내달 형사공판

LA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70대 한인 치과의가 경찰에 검거됐다.

LA카운티세리프국에 따르면 배운범(76·영어명 마이클)씨가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 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배씨에게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번 체포는 피해 여성이 LA경찰국(LAPD)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2023년 5월 22일)하면서 이루어졌다. LAPD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지난 9일 배씨를 체포하기 위해 치과까지 급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LA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인정신문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된다.

배씨는 현재 형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있다. 먼저 40대인 피해 여성은 배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난해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당시 소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짜, 시간,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이 여성에게 적당량의 12배에 달하는 수면진정제 계열 약품인 ‘트리아졸람(triazolam)’을 투여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다. 또, 이 여성은 ‘제발 그만하라’며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배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배씨가 피소 후 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이 중지됐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배씨의 파산과 관련한 면책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2일 법원에 중지된 소송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산법상 성폭행 혐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본지 확인 결과 배씨는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파산 신청을 세 차례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채무자의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US 트러스티는 파산 신청을 한 배씨에 대해 재산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파산 법원 청문회는 30일(오늘) 진행된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감지니 변호사(로펌명·레고위츠팍)는 “배씨는 증인 신문일이 다가오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는 사기 파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력을 보면 과거에도 소송을 막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US트러스티도 파산 의도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씨의 변호를 맡은 김지영 변호사는 지난 23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체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으로 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파산의 경우 US트러스티에서 서류를 좀 보내달라는 정도이며, 병원은 폐쇄는 아니고 ‘운영 중단’ 상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한인 작가, 그라미 뮤지엄에 벽화 그린다

영화 ‘기생충’ 그림 작가 지비지 한글 사용해 팝아트 요소 강조

LA다운타운에 있는 그라미 뮤지엄의 얼굴에 한인 작가가 걸린다. 유명 작가 콜레트 밀러(Colette Miller) 등의 작품이 걸렸던 입구 바로 왼쪽의 벽면 자리다.

주인공은 영화 ‘기생충’ 속 ‘다송이 그림’으로 작품으로 각인시킨 작가 지비지(ZIBEZI·본명 정재훈·44)다. 작품은 다음 달 2일(금)부터 뮤지엄 외벽에 전시된다.

지난 5월 그라미 뮤지엄 측으로부터 벽화 의뢰를 받은 그는 이번에 ‘K팝’과 ‘LA’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특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래피티 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보안상 현장 작업이 아닌 아이패드로 작업을 진행했다. 공개될 작품은 가로 212인치, 세로 117인치 크기다. 지비지는 작품을 프린팅한 뒤 외벽에 벽화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벽화가 걸릴 곳은 한때 콜레트 밀러의 작품 ‘날개들(Wings)’가 전시됐던 곳이다. 관광객들의 사진 스폿으로도 유명했다.

지난 24일 그라미 뮤지엄 앞에서 만난 지비지는 “팬데믹 때 이곳을 지나가며 ‘여기에 내 그림이 걸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루어졌다”며 벽화 심정을 전했다.

영화 ‘기생충’ 속 작품으로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은 그는 LA 그라미 뮤지엄의 대문을 장식하며 세계적인 작가로서 발돋움을 시작한다.

‘K팝’을 주제로 그린 이번 작품에는 지비지만의 통통 튀는 색감이 잘 묻어



지비지(정재훈) 작가가 아이패드에 담긴 그라미 뮤지엄 외벽에 설치할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사진 왼쪽에 보이는 벽화 ‘축음기’가 설치된 자리에 전시된다. 김상진 기자

나 있다. 그의 시그니처인 마주 보는 남녀의 모습을 중심으로, 색감있게 그려낸 장난기 넘치는 아이콘들은 밝고 활기차며 역동적인 LA를 표현하고 있다.

또 K팝 주제에 맞게 ‘사랑해요’, ‘케이팝’, ‘그라미아이돌’ 등 다채로운 한글 단어들은 팝아트적 요소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지비지는 “그림을 본 그라미 측에서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며 “특히 한글로 적힌 ‘아이돌’의 뜻을 듣고는 흥미로워하며 호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평소 자유로운 직선과 곡선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그의 그림 스타일이다. 정형화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라미 뮤지엄과 의도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그는 “작업하면서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다. 평소 주제로 삼는 5가지 요소인 사랑, 패턴, 자화상, 캐릭터, 추상을 작품 하나에 모두 녹여내 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적부터 낙서를 좋아했고 나이 먹은 지금도 좋아한다”며 “그림만큼은 고상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다. 나는 솔직한 것을 추구하며 어린이의 순수함과 또 다른 어른의 순수함을 찾는 과정은 참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지비지는 LA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림에만 집중하면서 활동 무대를 넓혀가는 중이다.

그는 “내년 초에 진행될 아카데미 뮤지엄의 봉준호 감독 상설전에 ‘기생충’에 나온 다송이 그림도 전시되는데 2년 동안 보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때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갔더라도 이런 기회들은 없었을 것이다. 거리 예술의 진가를 볼 수 있는 LA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며 “새로운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개인전이나 콜라보 작업도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한인 에드먼, 다저스서 뛴다

카디널스와 트레이드 성사 WBC 한국 대표 출전 유명



광경아씨와 아버지 존 에드먼 사이에서 태어나 5살 때 LA로 왔으며 한인타운에서 한식 먹는 것을 즐긴다고 알려졌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계 부모들의 현신은 매우 특별하다”며 “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이곳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먼은 최근 5시즌 동안 162경기에 출장해 홈런 14개, 2루타 33개, 도루 29개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카디널스의 2루수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지난 시즌 손목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예상보다 회복이 늦어져 경기 복귀 시기는 불확실하다. 최준호 기자

LA 다저스가 한인 선수 토미 현수 에드먼(29·사진)을 영입했다. 에드먼은 메이저리그 선수이면서도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미국 대표가 아닌 한국 대표로 출전할 정도로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

29일 ESPN에 따르면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에드먼을 영입했다. 에드먼은 내야와 외야를 모두 맡을 수 있는 선수가지만 다저스에서 주로 유격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빠른 발과 깎파워(타자가 외야수 사이로 타구를 날리는 능력)로 유명한 베테랑이다. 에드먼은 샌디에이고에서 어머니

텍사스 출신 한인 남성 뉴저지서 주택 강도 체포

텍사스 출신 40세 한인 남성이 뉴저지의 한 주택에서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8일 뉴저지 버겐카운티검찰청에 따르면 텍사스주 캐롤린 출신 박지선씨가 지난 27일 뉴저지주 노우드에서 주택 무장 강도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검거됐다.

노우드경찰국은 지난 27일 오후 12시 20분쯤 노우드의 임파첸스웨이 인근 주택에서 무장 강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택 차고에서 두 성인과 한 아이가 복면을 쓰고 무장한 박씨와 대치 중이었다.

박씨는 세 사람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박씨를 향해 비명을 질렀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계속 비명을 지르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김경준 기자

방시혁, LA서 2640만불 저택 매입

(BTS 소속사 의장)

100% 개인법인 명의 구매



음악 제작·네트워크 목적방시혁(사진) 하이브 의장이 개인 부동산 법인을 통해 LA에 있는 264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저택을 사들였다.

30일(한국시간) 한국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벨에어 스트라델라’(BEL AIR STRADELLA, LLC)라는 회사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업체는 미국을 소재로 ‘부동산업’을 업종으로 삼고 있으며, 방 의장은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이번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가 발생

한 것이고, 실무상 단순 누락돼 정정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트는 지난해 방 의장이 LA부촌 벨에어 스트라델라로 도로에 자리 잡은 고급 저택을 매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 의장은 이 저택을 해당 부동산 법인 명의로 매입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개회식 때리기' 가세한 트럼프

보수층과 종교계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 폭스뉴스에 "난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지만, 그들이 개회식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회식에 다양한 공연을 올릴 수 있다고는 해도, 그건 정말 형편 없는 공연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장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다.

긴 식탁 앞에 푸른 옷을 입은 여성 주위로 드래그퀸(여장 남자) 공연자들이 모여 섰고, 이들은 예수의 사도처럼 묘사됐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종교계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미국의 스타 종교인인 로버트 배런 주교는 개회식 직후 '최후의 만찬' 공연에 대해 "역겹고 경박한 조롱"이라



자동차 보험료 상승세가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 분노를 표출했다. 배런 주교는 소셜미디어(SNS)에서 3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스타 종교인이다. 그는 전 세계의 가톨릭교도들이 비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후인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선 최후의 만찬과 같은 장면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에서 열린

올림픽 개회식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지지층인 보수와 유권자들의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수와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전통에 대해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고, 성소수자(LGBT) 관련 문화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각국 종교계에서 개회식 공연을 비판하자 "종교계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선 상태다.

LIG넥스원, 고스트로보틱스 인수

올해 국내외 로봇 본격 진출
탐색, 화재진압 등 핵심 주도

LIG넥스원은 29일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국투자PE)와 함께 미국의 사족보행 로봇 전문 기업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60% 인수했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 LNGR LLC를 통해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해왔다.

회사 측은 지난 26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투자 승인을 비롯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이번 인수로 고스트로보틱스의 지분 4억달러 가운데 약 2억4000만달러에 해당하는 지분 60%를 확보하게 됐다.

2015년 필라델피아에 설립된 고스트로보틱스는 사족보행 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비전60'은 긴 배터리



고스트로보틱스 사족보행 로봇 비전.

지속 시간과 함께 자갈밭, 언덕 등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물에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모듈형 설계를 통해 임무 유형별로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할 수 있고 손상된 부품을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다.

고스트로보틱스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보유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개런 캐넬리 고스트로보틱스 최고경영자(CEO)는 "LIG넥스원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며 "고스트로보틱스의 기술력과 글로벌 비전이 LIG넥스원의 성장과 번영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G넥스원은 올해 안으로 워싱턴 DC에 협력센터를 설립해 국내외의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탐색·구조, 화재감시·진압, 장애인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는 "LIG넥스원과 고스트로보틱스는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연구개발(R&D) 중심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사의 최첨단 기술을 융합해 국방과 민수 분야를 아우르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으로 2분기 부동산 자산 압류 규모가 205억 달러를 넘어섰다. 오피스 빌딩이 몰려 있는 뉴욕의 맨해튼. [로이터]

2분기 부동산 압류 9년만에 최대

상업용 부동산 침체 여파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지난 2분기의 부동산 자산 압류 규모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시장정보 제공업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4~6월 압류된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기타 상업용 부동산 규모는 205억5000만 달러로 1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15년 3분기(275억 달러)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이전보다 급감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건물주들은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훨씬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사무실 공실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 대출기관이 늘어나면서 부실 부동산의 압류가 늘어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도요타 튠드라·렉서스 LX 엔진 리콜, 무상으로 교체

주행 중 동력 상실 가능성

도요타가 리콜된 차량 10만여대의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한다.

도요타는 지난주 일부 2022~23년형 도요타 튠드라 픽업트럭과 렉서스 LX SUV 10만2000여대에 대해 문제가 있는 3.5L 트윈터보 V6 엔진을 새 엔진으로 무상 교체해 준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이들 개솔린 전용 엔진이 생산 공정 중 가공 잔해물이 엔진에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5월 자발적인 리콜을 단행한 바 있다.

도요타에 따르면 잔해물로 인해 잠재적인 엔진 노킹, 시동 불량, 엔진 꺼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속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충돌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리콜 여부는 웹사이트(nhtsa.gov/recalls, toyota.com/reca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1위 5 3 3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유저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저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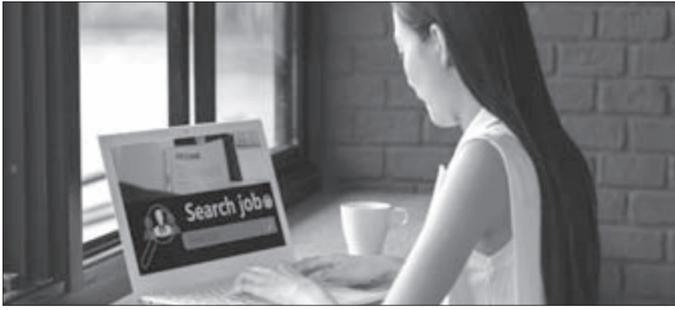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역조물)
웨일리노래방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직 고려

레주메빌더, 응답자 28%
찬바람 부는 고용 시장에도
월급 인상 목적이 주요인



고용시장에 벅기가도는 가운데도 젊은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은 가운데 '이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폭스뉴스는 이력서 작성 보조업체 레주메빌더가 정규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를 인용해 약 28%가 올해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18~34세의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다만 연내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 응답자가 21%였으며,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은 7%에 그쳤다.

줄리아 투스에이커 레주메빌더 경

력 전문가들은 "젊은 근로자들은 이직에 대해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보다 보다 열려있다"며 "산업 및 근로 환경 등의 요인들이 개인 성향과 부합하는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직이 월급을 올릴 수 있는 주된 수단 중 하나"라며 "특히

경력을 쌓는 초기 단계가 이직을 계획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설명을 더했다.

실제로 임금 인상이 이직을 고려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염두에 둔 응답자 절반 이상(56%)이 현재 소득에 만족하지 않았다.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 이직하

겠다는 응답은 44%에 달했다.

업무 강도와 근로 환경 개선 등도 이직 고려 사항으로 꼽혔다. 심리적 압박감이 높은 업무로부터 탈피가 43%나 됐다. 원격근무 환경 제공 여부도 구직자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업체는 짚었다.

투스에이커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앞선다는 전제가 따르면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띤 채용 공고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근로 환경 조성에 대한 주도권이 고용주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출근(Return-to-office) 의무화 등이 확대 적용되는 추세라고 폭스뉴스는 진단했다.

한편 2022년 당시 코로나 19가 촉발한 '대규모 사직 사태(Great Resignation)' 때는 약 4700만여 명이 직장을 옮겼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직 결정을 후회했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폭스뉴스는 신중하게 이직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재선 기자**

브리프

탈달러화, 역효과 우려

달러화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곧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CPM 그룹의 설립자인 제프리 크리스찬은 "탈달러화에서 벗어나려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탈달러를 추진하면 역효과가 나타나 해당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탈달러가 다국적 통화 체제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현실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탈달러가 세계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중앙은행들도 이를 보유한 만큼 탈달러화 국가는 '결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 탈달러화를 시도하는 국가는 무역 파트너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이는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과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달러가 우월한 가치 저장 수단인 만큼 다른 통화를 보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쁜 투자'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크리스찬은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고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투자"라며 "러시아 등 예외를 제외하면 대규모 탈달러에 나서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IFA 파트너 국가로 선정

오는 9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IFA'에 한국이 스타트업 플랫폼 혁신 파트너 국가로 참여한다.

IFA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IFA에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차세대 기술을 집중 조명하는 스타트업 플랫폼 'IFA 넥스트(NEXT)'의 혁신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 전시회 IFA 넥스트에서 한국관을 자체 운영하며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분야의 잠재력이 있는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20곳을 소개할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의 CES,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와 함께 세계 3대 전자·IT 전시회로 꼽히는 IFA는 오는 9월 6~10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맥도날드 팬데믹 후 첫 판매 감소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메뉴 가격 인상 등 여파로 2분기 판매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는 29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4~6월 글로벌 동일매장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동일매장 매출의 감소는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4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당 순이익도 2.97달러로 시장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전망치(3.07달러)를 밑돌았다.

국내 매장의 경우 전략적인 메뉴 가격 인상으로 평균 결제액이 증가했음에도 방문 고객 수가 줄어 동일매장 판매가 전년 대비 0.7% 줄었다고 맥도날

드는 설명했다.

최근 1년간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자 '저렴한 한 끼'를 찾던 소비자들이 비싸진 패스트푸드 체인으로부터 등을 돌린 바 있다.

원부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을 메뉴 가격 인상으로 반영해왔던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최근 들어 각종 할인 이벤트로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맥도날드는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난 6월 말 5달러 세트 메뉴를 한 달 한시 기획상품으로 내놨고, 최근 이벤트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스타워즈'에서 레아 공주 역할을 한 캐리 피셔가 비키니를 착용한 장면. '스타워즈' 공식 홈페이지 캡처

'스타워즈' 공주 비키니 낙찰가 '깜짝'

영화 '스타워즈'에서 레아 공주를 연기했던 캐리 피셔가 입었던 황금색 비키니 의상이 경매에서 17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렸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6 제다이의 귀환'(1983)에서 레아 공주 역의 피셔가 입었던 비키니 의상이 전날 텍사스주 델러스의 헤리티지 옥션에서 17만5000달러에 낙찰됐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상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비키니는 '스타워즈'의 콘셉트 디자이너 리처드 밀러의 작

품이다. 상·하의와 엉덩이 부분의 고리, 팔찌까지 한 세트로 구성돼 있다. 영화 속에서 레아 공주는 범죄 조직의 보스 '자바 더 헛'에게 노예로 잡혀있을 때 이 비키니를 착용했다. 레아 공주가 자바 더 헛을 죽일 때 비키니의 고리를 이용하는 장면도 영화에서 나온다. 피셔는 2016년 별세하기 한 달 전 한 인터뷰에서는 이 의상에 대해 "거의 별거 없었다. 나를 위한 의상 선택이 아니었다"고 회고하며 "매우 긴장했었다"고 털어놨다. 이 의상을 입고 아주 바른 자세로 앉았어야 했던 고충도 고백했다. **한영혜 기자**

는 등 최적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라치는 더 나은 성과를 내는 RV 산업과 전반적인 경제의 주요 '촉매제'로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를 지목했다. 연준이 2021년 공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금리는 이미

인플레이션의 무게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그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는 여전히 있다"면서 "하지만 높은 금리가 사람들의 구매 의도를 실행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 "RV 판매 호조는 경기 청신호"

레저용 차량(Recreational Vehicle: 이하 RV)이 물가 상승과 높은 금리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되면서 경제의 밝은 단면을 예고하고 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28일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면 RV 판매가 추가로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올해 5월 RV 출하량은 전년도의 3만9199대보다 7.2% 증가했다. RV는 지난 2021년 팬데믹 국면에서 연간 기준 60만대 이상

출하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수요 부진에 시달렸다. 2023년에는 출하량이 31만3174대로 반토막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RV산업협회(RVIA)는 팬데믹 절정기에 몇년동안 사람들이 RV를 구매했기 때문에 판매와 출하가 줄었다고 풀이했다. 이제 출하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RV산업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의 대변인인 모니카 게라치는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6개월 동안 생산이 판매를 앞섰고 그 다음 판매가 생산을 앞지르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맞춤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화염병에 총성까지... 차베스 동상도 부숴졌다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반발 확산
마두로 포스터 찢고 경찰과 충돌
남미 특유의 항의표시 냄비 시위도
경제난에 여당 지지층도 가세



29일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크루스에서 대선결과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대가 화염병 불길에 피해 달아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네수엘라가 대선 이후 혼돈에 빠졌다. 니콜라스 마두로(62) 대통령이 3연임 성공을 주장하자,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를 외치며 정부 측과 충돌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야권을 지지하는 성난 시위대가 카라카스 도심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가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자 남미 좌파 포퓰리스트의 우상과 같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동상을 넘어뜨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선거 포스터를 발로 밟는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 지역에선 총성도 들렸다. 군·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서면서 시위가 더 격렬해지는 모습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현지 시민 단체인 ‘포로 파넬’은 이번 시위로 베네수엘라 북서부 야라쿠이주(州)에서 1명이 숨지고, 4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꼽히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이날 “군인 20명 이상이 (시위대가 쏜 총탄에 맞아) 다쳤다”고 말했다.

남미 특유의 ‘카세롤라소(cacerolazo)’ 시위에 나선 사람들도 있다. 냄비를 뜻하는 스페인어 ‘카세롤라(cacerola)’와 두드린다는 뜻의 접미사 ‘아소(azo)’가 결합한 말로 냄비나 프라이팬을 두들기는 남미의 전통적인 무폭력 시위 방식이다.

이번 시위는 부정선거 의혹에서 출발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자정 80% 가량 개표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득표율 51%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출구조사에선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75)가 마두로 대통령을 2배 넘는 득표율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개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성난 민심은 부정선거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25년간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이어진 좌파 포퓰리스트 정권이 집권한 베네수엘라는 2018년 한 해에만 6만500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파탄이 장기화하고 있다.

설상가상 잦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세계 1위의 원유 보유국인 데도 연료난에 시달리는 웃지 못할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시위의 과급력이다. 이번 시위가 마두로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서민 계층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 시위와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시위대 중 상당수가 차베스모(차베스주의)의 근거지인 산비탈 빈민촌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몸에 국기를 두르고 시위에 나선 한 시민은 “실업자 신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이가 부지기수”라며 “많은 사람이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BBC에 말했다.

주변국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 우파 성향 중남미 9개국 정부는 미국 주도로 창설된 미주 지역 내 최대 국제기구인 미주기구(OAS)에 개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마두로 정부는 페루 등 중남미 7개국의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마두로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내 대통령 당선·연임을 축하했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베네수엘라 전 지역을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적색경보로 상황 조정했다.

박현준 기자

프랑스 이어 독일 잇따라 철도 방화

러, 배후설에 “근거없는 비난 말라”

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도 29일(현지시간) 철도 방화 사건이 발생해 당국 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함부르크와 브레멘 북부 도시를 잇는 철도 선로에서 방화 공격이 발생했다. 독일철도는 오전 4시께 화재를 확인하고 일부 구간을 폐쇄하는 한편 브레멘 중앙역을 지나는 열차를 우회 운행했다.

이날 브레멘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함부르크 인근 철로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이 방화 장치를 이용해 브레멘 근처 철도 제방 선로의 전기·통신 배선 장치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지난 26일 올림픽 개막식 직전 파리로 오가는 고속철도 선로 여러 곳의 케이블이 방화 공격을 받아 고속열차(TGV) 운행이 대거 취소·지연됐다. 29일 새벽엔 프랑스의 부슈뒤론·우아즈·오드 등 6개 지역에서 SFR·부이그·프리 등 여러 통신사의 광섬유 케이블이 절단됐다.

프랑스와 독일 당국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배후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파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기자

애플, 구글 AI칩 선택... ‘엔비디아 천하’ 균열 조짐

(학습용)

애플의 선택이 엔비디아가 독점 중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장착할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장치(GPU)가 아닌 구글이 설계한 텐서 처리 장치(Tensor Processing Unit:TPU)를 택했다.

애플은 29일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AFM)’이란 제목의 47쪽 분량 논문을 공개했다. 이 논문에서 애플은 AFM 온디바이스와 AFM 서버 모델에 대해 “클라우드 TPU로 학습시켰다”고 밝혔다. 논문에서 구글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부터 구글이 자체 설계해온 AI 반도체 TPU를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엔비디아 GPU로 학습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애플은 논문에서 “TPU를 통해 AFM 온디바이스와 AFM 서버, 그리고 두 모델보다 훨씬 더 크고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PU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이 모두 가능한 AI 반도체다. AI 반도체는 용도에 따라 AI 모델 구축 및 훈련에 사용되는 학습용과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정교한 결과를 생성하는 데 최적화된 추론용으로 나뉜다. AI반도체 업계에선 현재까지 학습용 AI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 GPU와 맞설 적수가 없다고 본다. 미국 투자 전문매체 더 모틀리 풀(The Motley Fool)은 “엔비디아는 AI 학습용 반도체 시장의 약 98%를 점유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거의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후발 주자들은 추론용 AI 반도체인 신경망 처리 장치(NPU) 개발에 집중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엔비디아의 GPU가 아닌 구글의 TPU를 선택했다. 업계에선 학습용 AI 반도체 시장에 일어날 변화의 신호탄으로 이를 해

석한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룩픽 등은 모두 자사 AI 모델 학습에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애플의 발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첨단 AI 훈련과 관련해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국내 AI 반도체 업체 한 고위 임원은 “구글이 본격적으로 외부 고객용 TPU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지위가 공고했던 학습용 AI 반도체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들이 탈 엔비디아를 시도하는 건 비싼 비용과 공급 부족 문제 때문이다. 엔비디아 GPU의 개당 가격은 3만~4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하지만 AI 붐을 타고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빅테크들도 사실상 GPU를 ‘배급’ 받아야 하는 처지다. 반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는 구글의 최신 TPU의 경우 칩을 사용하는 데 시간당 2달러 미만이다.

빅테크들은 자체 AI 반도체도 개발 중이다. 애플은 TSMC와 손잡고

GPU를 대체할 추론용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애플이 수년 전부터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부코딩명 ‘ACDC’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픈AI도 최근 새로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사내 전담팀을 만들고,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11일 영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래프코어를 인수했다.

강광우 기자

용도별 AI 반도체 특징

학습용 AI 반도체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계 범용성이 높고, 다양한 AI 모델에 적용 가능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큰 편 엔비디아 GPU 시장 장악, 구글 TPU도 이용 가능

추론용 AI 반도체

학습된 AI 모델 기반으로 결과 최적화 중점 특정 AI 모델에 최적화된 설계 빠른 연산 속도와 저전력으로 처리 가능 퓨리오사시 등 국내외 AI 스타트업이 도전장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69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공개채용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편집 디자인**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격 : - 신입 및 경력
-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근무 혜택 : 회사 내규에 따름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사주가 과학이고 통계라고? 그게 흑세무민”

퇴행의 시대. 여야 막론 저질·막말로 얼룩진 정치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금 곳곳에서 퇴행을 겪고 있다. '근대에서 전근대로의 역행'이라 불리듯 무방할 역술(曆術)·무속(巫俗)의 대중적 인기도 그 중 하나다.

역술·무속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라진 적은 물론 없었다. IMF 경제위기 때 대학에 관련 학과가 생기는 등 반짝 붐이 일었다. 하지만 구한말 서양의학의 보급과 일제의 미신 타파 정책 이후 오로지 음지에서, 그것도 정치인·사업가 등 일부에서만 암암리에 행해져 왔다. 무당과 역술인은 천시 받았고, 그들의 고개 역시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드러내놓고 점사(占辭)를 믿는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런 역술·무속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침이 등장하고 인공지능(AI)이 이미 인간의 많은 기능을 대신하는 첨단과학의 시대에 양지로 올라온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대세로 자리 잡았다. '범죄도시4'를 누르고 올해 가장 많은 관객(1191만명)을 동원한 영화는 무당과 풍수사가 한국에 자리 잡은 일본 귀신과 맞서는 '파묘'이고, '나는 솔로'를 누르고 화제성 1위를 한 연애 세드그램은 외계어 매력적인 합한 MZ 세대 무당·퇴귀사·역술가를 등장시킨 '신들린 연애'이니 하는 말이다. 정치권의 무속인 관련 루머도 유례없이 심해졌고, 세계를 호령하는 K팝 기업에서 조차 무속 경영 얘기가 나온다.

'파묘' 속 세련된 무당 화림(김고은 분) 말마따나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나왔나 싶다. 겁나 험한 게.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역술·무속 트

랜드에 정색하고 반기 든 인물이 있다. 『사주는 없다』를 쓴 독일 유학파 이재인 박사(64·베를린공대 인문학부)다. 박사 후 10년 넘게 정식으로 사주를 공부한 이력도 흥미롭지만, “당장 못자리 퍼도 되겠다”는 찬사를 들던 그가 10년 공부를 스스로 허무는 책을 왜 썼는지 궁금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만나 들은 얘기를 그의 시각에서 정리했다.

말하나하나 한 운명을 거부

전혀 등 점집 좋아하는 지인이 많아, 점 보러 자주 다녔다. 그중 인상적인 게 유학 중이던 1990년대 중반 내로라하는 정치인·기업인을 단골로 둔 노석 류 총업(1931~2008) 선생을 만나러 서울 역문관을 찾았을 때다. 그는 “당장 귀국하라”고 했다. 이 말 듣고 귀국할 바보가 있나 싶어 독일로 돌아갔다. 만약 그 말을 따랐다면 지금 다른 삶을 살겠지만, 뭐가 더 나은 삶인지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하나 하나 한 말이다. 역술인이 말하는 운명이란 이런 것 아닐까. 하나 하나 한 말.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다. 직장생활 5년을 스스로 접고 유학 15년만인 2008년 말 귀국해 “교수 될지 알아보자”는 사촌 여동생에게 물어 점집을 전전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말이 달랐다. 신에 의지한다는 무속인과 달리 역술인은 공부로 본다길래 “내가 공부해서 내 사주 보면 되겠다” 싶어 2013년 봄 독학을 시작했다. 솔직히 내 사주보다, 역술인들이 “사주명리학 공부로 운명을 안다”는데 대체 어떤 공부길래 남의 운명을 안다고 감히 말하는지가 더 궁금해 시작한 공부였다.



지난 5일 『사주는 없다』를 쓴 이재인 박사를 만났다. 사주 이론의 근거에 대해 공부할수록 허점투성이었다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공부가 더더 더 바닥 최고로 통하는 계룡산 감로사 난월 박주현(67) 스님을 찾았고, 우여곡절 끝에 600만원을 내고 일주일에 2시간씩 12회 개인 수업 듣는 거로 본격적인 공부에 발을 들였다. 10주는 사주, 나머지 2주는 작명·타로(오쇼젠)·택일·오주괘(시간으로 점치는 법)였다. 그렇게 방향 잡고 낭월과 공부를 이어가며 5년쯤 지나 궤도에 올랐을 때 사주를 봐주면 “족집게”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나중에 철학관 차

리면 용돈이라도 벌겠다. 싶었다. 간혹 “안 맞는다”는 이를 만나면 공부 부족이라 생각했다.

몇 년 더 흘러 사주 여덟 글자와 삶의 연관성, 무엇보다 사주 이론 자체의 근거에 의문을 품은 사건이 생겼다. 2021년 한 달 정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채 여러 사람과 합숙할 적에 심심풀이로 사주를 보았다. 평소 보던 만세력(60갑자로 구성된 사주팔자 보는 달력)이 없어 정확한 사주명식(四柱命式)을 못하고 자료실에서 찾은 오래된 만세력으로 했다. 8명 중 7명이 “대체로 맞는다”며, 서너 명은 “소름 끼치게 맞다”고 감탄했다. 나중에 최신 만세력을 확인했더니 사주명식이 모두 틀렸다. 그런데 다 맞다니, 이게 뭤까.

지식인의 흑세무민이 문제

지난 몇 년 동안 사주명리학 뿌리를 찾으려고 춘추전국시대부터 진한시대까지 중국 문헌 수십 권 등을 살펴봤다. 하지만 어디에도 근거는 없었다. 오히려 허점 투성이었다. 내 책 속 학술적 설명도 필요 없이 “사주는 통계”라는 세간의 믿음부터 그렇다.

수천 년 축적된 학문이라면 통계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없다. 사주는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 있다. 한 명이 한 번씩만 간명(看命·운명을 본다)해도 118년 걸리니 불가능한데, 세대를 이어 축적된 자료도 없다. 또 통계라면 누가 해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역술인마다 다르다. 과학적 증거를 제시 못한다면 과학이 아니다. 인과적 연관성 없는 점술일 뿐이다.

그럼에도 신문 칼럼 기고와 TV 강연 등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부 유명인사들이 사주명리학을 검증된 학문처럼 떠벌리는 바람에 터무니없이 과장됐다. 대표적 인물인 ‘전업’ 역술인이 아닌 고전 평론가 고미숙, 대중음악 평론가 강현, 신경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등이다. 이들은 “시한부 인생 선고 받고 사주 공부했더니 맞아 떨어지더라”(강현)는 경험을 간증처럼 소개하면서 사주명리학을 과대 포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지하다. 만담처럼 얘기하면 재미로 넘기면 된다. 유명 칼럼니스트 조용헌을 굳이 비판하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사회적 지명도에 더해 전문가의 권위까지 누리는 이들이 본인의 명리학책을 기반으로 고액의 강연·방송을 활발히 하며 “운명의 우주적 거래”(고미숙)라거나 “내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학문”(양창순)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퍼뜨리는 건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된 흑세무민 아닌가.

특히 양창순은 의학 박사라 역술인에 비할 바 없이 큰 신뢰를 줬서 문제다. “우주의 기(氣)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다”며 임상에 활용해선 안 된다. 나 역시 역학 공부 초기 고미숙 작가 책을 읽고는 “이 정도 공부 가 깊은 사람이 허황한 거짓을 말할 리 없다”고 전적으로 신뢰했다. 지난해 OTT 티빙 예능 ‘MBTI vs 사주’ 자문을 하면서 일말의 믿음마저 깨졌다. 프로그램 자체도 허점투성이였다. 하지만 제작진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다. 자문 과정에서 고 작자에게 물었더니 “근거를 묻는 것처럼 무식한 질문이 없다”며 화를 내더라는 것이다. 그나마 말이 통할 거 같아 사주 이론 근거에 대해 같이 논하자고 그에게 써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안혜리 논설위원

▶ 1면 ‘특별기고’에서 이어집니다

일각에서 대미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두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안보·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그것은 현명한 대안이 아니다.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인사 중에는 고립주의자가 많지만, 힘에 의한 평화와 동맹의 협력을 중시하는 ‘레이건주의자(Reagan Republican)’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에 어떤 목소리가 트럼프 2기의 정책으로 구현될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동맹국들의 노력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므로 한국의 대미 외교는 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미 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2016년 대선 기간에 당시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서 필자가 특히 예의주시한 현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무역 불균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이었다.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LNG) 수입을 서둘렀고, 한·미 FTA 개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임명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취임 초기부터 수차례 면담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 캠프의 선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물론이고,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440억 달러)를 넘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고

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바이든 정부 시절 대규모로 이뤄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문제 등이다.

1기 정부 참모들의 정책 건의서 주목

이런 문제들에 대한 트럼프 캠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트럼프 1기 정부에 참여했던 참모들이 주축이 된 정책 건의서(‘프로젝트 2025’),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J)의 주요 건의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방한하는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 만나 이런 이슈를 화제로 심도 있게 대화해야 한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와 기술, 군사 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호주, 그리고 한국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기대를 종종 피력한다. 이들은 한국의

방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들 분야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한·미 관계를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좋은 기초다.

셋째, 대미 협상 전략 마련과 함께 중요한 것이 대선 캠프와의 인적 관계 구축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에는 특별한 조직이 있다. 미국 의회와의 관계를 다루는 의회과다. 의회과는 평소 상원 팀, 하원 팀으로 나누어 활동했다. 그런데 필자가 대사 시절 대선이 있던 2016년에는 민주당 팀, 공화당 팀으로 나눠 운영했다. 각 선거 캠프와의 인적 네트워크 심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이런 노력으로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과도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대

선 이전에 만난 공화당 전국위원장 라인스 프리버스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고, 마이클 플린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됐다. 경제 각료 중에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던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취임 전부터 누차에 걸쳐 만났다. 그는 “나를 스토킹하느냐”고 농담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미 관계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될 정도로 우리 국익에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다. 면밀히 대비하면 이번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더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제,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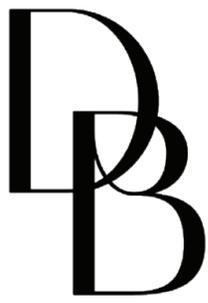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DONNA BELLA

LASER MEDSPA®
WWW.DONNABELLALASER.COM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FDA 승인을 받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당신의 10년을 돌려 드립니다.



머리→헤어 복원
Laser Hair Restoration

얼굴→피부 레이저 치료 & 기미 제거
Fractional CO2 Laser, Laser Melasma Treatment

질→질 회춘술
Non Surgical Laser Vaginal Rejuvenation
질 건조증
Vaginal Dryness
요실금
Urinary Incontinence

눈썹→눈썹 문신 제거
Eyebrow Tattoo Laser Removal

쥐젖 / 피부점 / 사마귀
Skin Tag / Skin Mole / Wart

복부→바디 콘투어링 & 체중 감량 프로그램
Laser Body Contouring & Weight Loss Program

다리 & 겨드랑이→레이저 헤어 제모
Laser Hair Removal

다리→노출 혈관 제거
Non Surgical Laser Vascular Treatments

발→발톱 무좀 치료
Laser Toenail Fungus Treatment

Open Special H. Carbon Toning
~~\$350~~ → **\$99**

- REDUCING THE SIGNS OF PREMATURE AGING
- ERASING OR FADING YELLOW/BROWN PIGMENTATION
- SHRINKING SCARS (MUST BE YOUNG SCARS) OF A SMALL DIAMETER
- REDUCING FINE LINES AND WRINKLES
- IMPROVING SKIN INTEGRITY AND RADIANCE
- STIMULATING COLLAGEN GROWTH FOR FIRMER, PLUMPER SKIN
- REDUCING OILY SKIN OR EXFOLIATING DRY SKIN



Dr. 황지연
Jiyon Hwang-Ki, MD
BOARD CERTIFIED,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MD 락빌
T. 301.417.4975
15200 Shady Grove Rd. Suite 108
Rockville, MD 20850
Mon ~ Fri: 8:00am ~ 4:3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애쉬번
T. 703.443.4713
21785 Filigree Ct. Suite 206
Ashburn, VA 20147
Mon ~ Fri: 9:30am ~ 6:0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페어팩스
OPENING JULY 2024
13135 Lee Jackson Hwy. Suite 205
Chantilly, VA 22033
***직원 모집: Esthetician, Receptionist, Manager 그리고 NP or PA**

블랙요원 기밀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 한동훈 “간첩법 개정”

정보사 “기밀유출, 해킹은 아니다
6월에 정보기관서 통보받고 알아”

한동훈 “민주당, 간첩법 개정 막아”
‘북한 외 국가에도 적용’ 개정 촉구



조태용(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보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강정현 기자

대북 첩보 및 공작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우리 군 해외 요원(블랙요원)의 신상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정보본부(77사령부·정보사),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보사는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된 군무원 A씨와 관련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에 대해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 그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보사가 사건을 인지한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 배제한 데 이어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북극,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건은 어떤 규모에서든지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고,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와 접촉

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첩보 참사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더해져야 정보위원들은 입을 모아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을 포함해 정보 역량 침식 문제를 신속하게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 북에서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 (중국 동포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제동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며 “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법사위 소위 회의록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안보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손국희·김민정 기자

윤 대통령 “체코원전, 1000조 시장 진출 교두보... 원전지원특별법 만들 것”

김건희 보좌 제2부속실 내달 설치
부속실장엔 장순철 비서관 검토

대통령실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활동, 메시지를 관리할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며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철 시민사회 2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선 캠프 초기 멤버였던 장 비서관은 불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김 여사의 종교 일정을 간헐적으로 맡아왔다. 대통령실은 8월 중에 직제 개편과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직후인 2월 진행된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대통령 부

인인 대통령 가족에 불과해 별도의 보좌조직이 필요 없다”고 밝혔던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엔 이날 발표를 뜻밖이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KBS 대담 후 반년 가까이 제2부속실 설치 조짐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도 참모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배경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꼽힌다. 한동훈 대표 등 주자 전원이 제2부

속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터라 당정 관계의 뇌관을 대통령실이 먼저 제거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계속되는 ‘김건희 리스크’ 대응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협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

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허진·박태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 탄핵 현안 쌓여... 임기단축 개헌 나중 문제”

민주당 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
1주택 중부세 완화 입장 유지
“있지도 않은 사건 만들어 재판”
법정 출석 사진 내놓고 호소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과 관련해 30일 “탄핵과 관련한 현안이 쌓이고, 민생 현안도 많아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약해온 개헌보다는 탄핵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JTBC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현재 상태로 (개헌)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이 “누가 당 대표가 돼도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기 1년을 단축하는 7공화국 개헌을 천명하자”고 한 데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치 회동을 요청하며 4년 중임제를 담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제안한

바았다. 이어진 OX 코너에서도 이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은 탄핵과 개헌에 입장차를 보였다. ‘일상용어가 된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둘 다 ‘O’를 들었지만, 김 전 의원은 “3년 동안 국정을 지켜 봐야 하느냐는 생각을 국민이 꽤 하지만, 탄핵보다는 개헌으로 결단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이 전 대표는 “대통령부터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용어가 일상이 됐는데, 안타깝다”며 “탄핵은 일정한 선을 넘는 행태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이 이뤄져 탄핵 이야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토론회에는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등 세 후보가 나왔지만, 논쟁은 김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사이에서 주로 벌어졌다. 두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중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수 개편을 두고도 재차 이견을 드러냈다. 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중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당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도 “1주택 실거주자에게 거두는 중부세가 900억원인데 굳이 민주당이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인생의 시련기를 설명하는 시간에 법정예 출석하는 사정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독재 정권은 정치적인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였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택연금을 했다”며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고 재판에 많은 시간을 뺏기게 한다”고 호소했다.

강보현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76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스테이션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체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 4/ 화 3.5/ 차고2, 코너집, 굿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라이벌은 나” “오늘 후회없이”... 영코리아, 국민도 즐겁다

〈오예진〉

〈반효진〉

결과 실망스러워도 툭툭 털어 허미미, 패배 뒤 눈물 대신 미소

경기장에 서면 누구보다 진지 김제덕, 벌이 손 주변 날아도 ‘텐’

▶ 1면 ‘영코리아’에서 계속

공기권총 10m에서 사격 첫 금메달을 따낸 오예진은 2005년생이다. 올림픽 역사상 대한민국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여고생 사수’ 반효진은 2007년생이다. 반효진은 한국의 역대 최연소 메달리스트 기록(만 16세10개월18일)도 갈아치웠다.

단체전에서 나란히 정상에 오른 남녀 양궁 대표팀의 막내 김제덕과 남수현은 각각 2004년, 2005년에 태어났다. 여자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도 2002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수영에서 메달을 따낸 김우민은 2001년생이다. 이 밖에도 배드민턴의 안세영(2002년),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2003년), 탁구의 신유빈(2004년)도 2000년대에 태어난 대표적인 밀레니얼 세대다.

1990년대까지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영웅 서사’의 전형이었다. 신체 조건이 좋거나 달리기를 잘한다는 이유로 체육 교사나 운동부 코치의 추천을 받아 운동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끝에 세계 정상에 올라 ‘국위선양’을 한 뒤엔 시상대에서 애국가를 들으며 평평 눈물을 흘렸다.

2000년대에 태어난 ‘영 코리아’는 다르다. 경기를 마음껏 즐긴 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올림픽 무대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선수가 대부분인데, 주눅이 들기는커녕 자신감이 넘쳐난다. 국위 선양을 위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이 아니다. 영 코리아에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운동일 뿐이다.

여고생 사수 반효진은 어렸을 때부터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그의 부모는 “사격을 하겠다”는 딸을 말렸다. 그래도 딸이 고집을 굽히지 않자 반효진의 엄마는 “올림픽 금메달을 딸 거 아니면 그만두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엄마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훈련을 거듭했다. 반효진은 의 좌우명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후회 없이’다. 반효진은 좌우명처럼 후회 없이 좋은 결과와 사격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사격 오예진도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대다. 그는 인생의 라이벌로 자기 자신을 꼽았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심정을 물으면 그는 “내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오예진의 좌우명은 ‘내 갈 길은 내가 정한다’다.

사격 선수 금지현은 2022년 10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카이로 월드컵을 앞두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긴 비행과 빡빡한 일정을 우려하는 이가 많았지만 그는 깨끗이 출전했고, 결국 올림픽행 티켓을 따냈다. 그 이후 금지현은 만삭의 몸으로 여러 차례 대회에 출전했다. “배 속의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으나” “재 또 나왔네”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금지현은 이런 시선을 깨끗이 이겨냈다. 출산한 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 당당히 메달을 따낸 그는 딸 서아의 사진을 들고 활짝 웃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3관왕 이대명(36) 해설위원은 “요즘 선수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다. 똑똑하고 자기만의 논리가 확실하다. 본인의 이야기를 조리 있게 잘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 요즘 선수들은 예전 선배들과는 완

전히 다르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영 코리아’는 힘든 훈련도 즐겁게 받아들인다. ‘사생결단’으로 나서던 선배들과 달리 올림픽이란 큰 무대도 즐길 줄 안다. 최선을 다한 뒤엔 어떤 결과든 승복하고 받아들인다.

여자 유도 결승전에서 석연찮은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친 허미미는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다. 특히 은메달을 목에 건 뒤엔 활짝 웃으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김미정 여자 유도 감독은 “허미미는 굉장히 긍정적인이다. 대표 선수들이 단체로 심리 테스트를 받았는데 허미미는 부정적인 생각이 ‘0’에 가깝게 나왔다. 무엇보다도 밝고, 긍정적이고 대범하다. 좀처럼 긴장하지도 않는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접해도 곧 툭툭 털어버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에 나서는 자세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다. 남녀 양궁 단체전 준결승전에 나선 김제덕이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 벌이 그의 손 주위를 날아다녔다. 그러나 김제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과감하게 활살을 날려 과녁 중앙에 꽂았다.

김제덕은 “벌이 손 주위를 날아다녔지만 ‘올림픽인데 여기서 손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10점을 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최종호 스포츠평론가는 “2000년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목표’와 ‘결과’에 집착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도전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끼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반대로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분노를 표출한다”고 말했다.

파리=김효경·피주영·고봉준 기자

결승전 6발 모두 텐... ‘올림픽 삼수’ 설움 날렸다

남자 양궁 단체전 금 주역 이우석 리우·도쿄서 대표팀 선발 탈락 아픔 “마지막 발, 엄마 얼굴 떠올리며 쏘”

‘미스터 텐’ 이우석(27·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김우진(32·청주시청), 김제덕(20·예천군청)과 호흡을 맞춰 프랑스를 세트 스코어 5-1로 꺾었다. 세 번째 올림픽인 김우진, 두 번

째인 김제덕과 달리 처음인 그는 랭킹라운드에서 많이 긴장했다.

시상식 직후 그는 “결승전 첫 무대를 들어갈 때 긴장이 안 되더라. ‘오늘은 날이구나. 즐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김우진, 김제덕 선수에게 ‘괜찮아, 우리 것만 하면 돼. 내가 10점 쏠게’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며 “8강전 두 번째 엔드에서 한번 실수했다. 그때 긴장감이 확 올라왔다. 김제덕 선수 따라 목소리도 크게 내고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태극마크를 처음 단 그가 올림픽 무대에 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렸

다. 출전권 3장인 2016 리우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는 4위를 했다. 2020 도쿄 올림픽 뎀 선발전을 통과했으나 코로나19로 대회가 1년 연기됐고, 다시 열린 선발전에서 탈락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으로 출전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은메달 2개(개인전, 단체전)에 그쳤다.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단체전, 혼성전)인 그는 파리 올림픽 선발전을 당당히 통과했다. 어렵게 선 올림픽 무대에서 기량을 맘껏 발휘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6발을 모두 10점 과녁에 꽂았다. 마지막 발을 쏘



올림픽 무대까지 10년 걸렸다.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6발을 모두 10점에 꽂아 금메달을 이끈 이우석. 앞선 리우·도쿄대회 대표 선발전 탈락의 한을 풀고 2점3기를 이뤘다. 파리=김성룡 기자

면서 특히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다고 한다. “(전에) 올림픽 선발전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우셨습니다. 이 한 발로 끝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서 쏘았습니다. 그게 10점에 맞아줘 완벽한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동료들과 이제는 개인전 경이 한 발로 끝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파리=김효경 기자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젤로스로드 덤핑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63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Dr. Mi-Kyong Kwon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삐약이’ 해냈다... 12년 만에 올림픽 탁구 메달

(신유빈)

임종훈·신유빈 혼합복식 동메달 세계랭킹 4위 홍콩 4-0으로 완파 위기 때마다 ‘환상의 호흡’ 뿜내 ‘홍콩 응원’ 중국팬 함성 이겨내

임종훈(27·한국거래소)-신유빈(20·대한항공)이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랭킹 2위 임종훈-신유빈 조는 30일(한국시간)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 4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4위 원준팅-두호이킴 조(홍콩)를 4-0(11-5, 11-7, 11-7, 14-12)으로 이겼다. 2016년 리우 대회, 2020년 도쿄 대회에서 노메달에 그친 한국 탁구는 2012 런던 대회(남자 단체전 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추가했다. 경기장은 ‘자유’(加油·힘내라는 뜻의 중국어)를 외치는 중국 팬들의 응원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전날 중국 왕추진-쑤잉사 조와의 준결승전에서 비슷한 응원을 한 차례 경험한 신유빈과 임종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 게임 초반부터 임종훈이 두 호이킴을 잘 공략하면서 5-0까지 점수차를 벌린 뒤 11-5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게임 역시 신유빈이 백핸드 쪽을 철저하게 지켜 승리했다. 세 번째 게임에선 임종훈이 강력한 포핸드 드라이브로 다시 승리를 이끌었다.

네 번째 게임 12-12 상황에서 긴 랠리 끝에 매치포인트를 따낸 뒤 한국 벤치는 타임아웃을 불러 템포를 조절했다.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 범실과 함께 승

부가 마무리했다. 두 선수는 서로를 끌어안고 승리를 만끽했다. 신유빈은 두 손을 들어 관중석을 향해 하트를 그렸다. 임종훈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기뻐했다.

신유빈은 “그동안 몸 고생,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쁘다.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랭킹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해외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 (임종훈) 오빠가 잘 참아줘 고맙다”고 말했다. 허리 부상으로 고생했던 임종훈은 “둘 다 부상도 많은데 좋은 결과를 얻어 좋다. 유빈이에게 고맙다”고 했다.

동메달 획득으로 상무 입대를 눈앞에 뒀던 임종훈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종훈은 “경기 전에 솔직히 (병역 특례) 생각이났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했다”고 웃었다. 파리=김효경 기자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 획득 직후 함께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신유빈(왼쪽)과 임종훈. 한국 탁구의 올림픽 메달은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파리=김성룡 기자

유도 은메달 허미미 “애국가 외웠는데, 4년 뒤엔 꼭 부를 것”

(여자 57kg)

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출신 결승전서 데구치에 아쉬운 패배

은메달을 목에 건 허미미(22·경북체육화·세계 3위)는 활짝 웃었다. 그는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여자 57kg 결승에서 크리스타 데구치(29·캐나다·1위)에게 반칙패했다. 지난 5월 세계선수권에서 데구치를 꺾고 우승했던 그는 이날 연장전에 안다리걸기를 시도하다가 위장공격 판정

을 받았다. 허미미는 “반칙패도 경기의 일부니까 어쩔 수 없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결승전까지 나가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허미미는 해성처럼 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어머니는 일본 국적인데 유도선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6살 때 입문했다. 중3이던 2017년 일본 전국중학교유도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 그가 한국에

온 건 “손녀가 꼭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할머니(2021년 별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는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년) 선생의 증손녀이기도 하다. 애국가 가사를 미리 외웠던 허미미는 “못 불러서 아쉽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부르고 싶다”고 4년 뒤를 기약했다.

파리=피주영 기자

체육관도 없던 남수단의 첫 승, 그 영광 뒤엔 한국인 있었다

농구 본선 첫 출전, 역사적 승리 거둬 임흥세 감독, 교민회장과 의기투합 올림픽위원회 세워 체육 기반 마련 한국 스포츠계도 유니폼·용품 후원

파리올림픽 남자 농구에 처음 출전한 남수단이 대회 판도를 뒤흔드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국제농구연맹(FIBA) 랭킹 33위 남수단은 28일(한국시간) 프랑스 릴의 피에르 모루아 아레나에서 열린 푸에르토리코(16위)와의 대회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90-79로 이겼다. 올림픽 본선 무대에 처음 출전한 ‘농구 막내’가 데뷔전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경기 종료 직후 선수단은 물론 관중석을 찾은 남수단 팬들까지 뒤엎켜 눈물바다를 이뤘다. 남수단은 지난 20일 이미 ‘예고편’을 선보였다. 세계 최강 미국과의 연습경기에서 시소게임 끝에 100-101, 단 한 점 차로 졌다. 33개의 3점 슈



를 시도해 14개를 쫓아 넣는(성공률 42.4%) ‘양궁 농구’로 미국을 베풀 때까지 몰아넣었다. 이어 벌어진 이날 푸에르토리코전은 남수단의 실력이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무대였다.

남수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수단



푸에르토리코와의 올림픽 본선 데뷔전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는 남수단 농구대표팀 선수들. 남수단 대표팀은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도움을 받아 경쟁력을 키웠다(오른쪽 사진). [AP=연합뉴스, 사진 데상트스포츠재단]

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연이은 내전으로 인해 자국 내에 실내체육관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농구 종목에서 급속도로 경쟁력을 키운 건 신체적인 장점이다. 굳은 의지를 결합한 결과다.

남수단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덩

카족은 전 세계에서 평균 신장(남자 1m90cm·여자 1m80cm)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프로농구(NBA) 무대에서 활약했던 루올 뎡 남수단 농구협회장의 키가 2m6cm다. ‘농구 DNA’를 확실하게 갖춘 셈이다. 열악한 환경은 헝그리 정신으로 극복했다. 남수단 포워드 웨넌 가브리엘은 “우리나라엔 변변한 훈련 시설조차 없다. 생활 환경도 마찬가지다. 나를 포함해 대표팀 동료 대부분이 난민으로 떠돌던 사람들”이라면서 “우리가 모여 훈련하는 기간은 1년 중 몇 주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자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건 남수단 농구의 기틀을 세운 게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남수단에서 축구를 가르치던 임흥세 감독과 현지 교민회장 출신 김기춘씨가 의기투합해 남수단 올림픽위원회(SSOC)를 창립했다. 이 과정에서 산하 단체로 농구를 포함한 9개 종목 협회를 함께 만들었다.

농구공과 유니폼 등 기본적인 훈련 장비조차 없어 한국 스포츠계가 도움을 줬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에리사 현 국가스포츠정책위원장의 주선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남수단에 자금과 스포츠용품을 전달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각 구단에 부탁해 수집한 프로 선수들의 유니폼을 전달했다. 그 덕분에 남수단 농구대표팀 출범 초기엔 선수들이 한국 프로농구팀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훈련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는 국내 스포츠 브랜드 낫소가 농구용품을 후원하는 등 도움을 줬다.

올림픽 기간 중 휴가를 얻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임흥세 SSOC 부위원장은 “농구대표팀의 승전보에 남수단 전역이 축제 분위기가 됐다”면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따뜻한 후원이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남수단 체육계 관계자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올림픽 본선 첫 승을 거둔 남수단 농구대표팀은 다음 달 1일 오전 4시 같은 장소에서 ‘최강’ 미국과 C조 조별리그 2차전을 벌인다. 송지훈 기자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VA Lic# 639047

DC 창고 SOLD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당센터 SOLD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SOLD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SOLD \$1.6M Capital Hill 지역	DC 사당센터 SOLD \$4.5M Popeyes, 연인권 \$32만	DC NW 아파트 SOLD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SOLD \$1.5M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LEASED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SOLD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SOLD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DC Warehouse SOLD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for SALE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 이복현 "자금흐름 불법흔적"

(금감원장)

(큐텐)

법원, 회생신청 하루 만에 명령 내달 2일 티메프 대표들 심문키로 10만 채권자 피해액 변제 받도록 "미정잔액 10%도 못받을 우려"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 하루 만인 30일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전 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신청 기업)가 재산을 도파·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등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명령 금지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하고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기로 했다. 회생 개시 여부를 가리기 전 티몬(류광진)·위메프(류화현) 대



구영배 큐텐 대표가 30일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왼쪽 사진). 이날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가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뉴스1

표를 심문하는 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잡았다. 회생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 걸리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해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 ARS는 회생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법원의 자산·채권 동결로 피해액 변제는 장기전에 들어갔다.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에만 4만 명 이상, 위메프에는 6만 명 이상인 것으

로 파악된다. 현재로서는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셀러)가 기일 수 있는 건 카드사·간편결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정도다. 이들 카드사와 결제대행사가 선 환불 조치 후 나중에 티메프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다. 다만 티메프 법정관리 상황에 따라 카드사 등이 환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경우 모든 채무 상황이 중단된다. 또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받으면 판매대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걸리는데, 이 기간 영세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티메프가 파산을 신청하면 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도산법연구회장 출신인 김관기 변호사는 "정산 미지급 대금 중 10%도 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각자도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업체가 정산 지연 발생 직전 대규모 현금 이벤트 등 판촉 행사를 벌인 데 대해선 "조직적인 사기·횡령·배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타·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도 중단=온·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해피머니도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가에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많은 온·오프라인 업체가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고객들에게 해피캐시 환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영·최서인 기자

피해 규모 1조원대 추산되는데 구영배 "800억 있는데... 투입못해"

국회 정부위 긴급현안질의 출석 "위시 인수 때 티메프 자금 일부 사용 인터파크·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부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대금을 갚을 돈이 부족하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금융당국은 구 대표가 판매대금을 빼돌려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구 대표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원"이라며 "이 부분도 다 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금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약 2134억원이다. 아직 정산이 도래하지 않은 대금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 대표는 큐텐 계열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도 대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구 대표는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판매대금 일부가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위시 인수 자금 2500만 달러(약 400억원)를 "티몬·위메프까지 일시적으로 동원해 차입했고 한 달 내에 상환했다"면서 "정산 지연 사태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가 잠시 위탁한 대금을 전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되지 않느냐"는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구 대표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판매대금 대부분을 알리·테무 등과 가격경쟁을 하면서 판촉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판매대금 행방은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자금흐름 출처조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이 지나기 전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티몬·위메프 검사 인력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추가 보강된 인력은 판매대금 행방을 추적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남준 기자

현실이 된 극한호우·가뭄... 기후대응담 14개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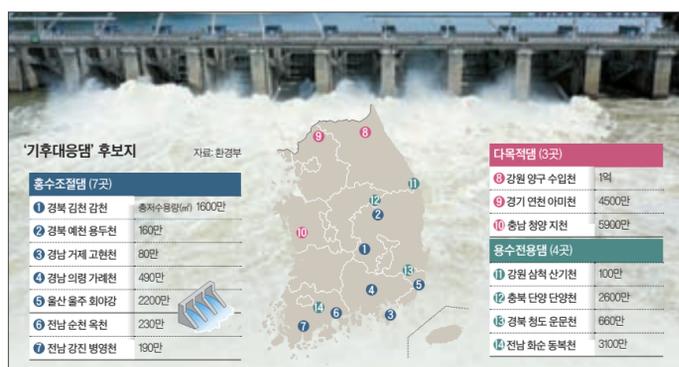
정부, 14년만에 신규 댐 건설 추진 작년 남부는 227일 역대최장 가뭄 올 장마 강수량 평년보다 1.3배 많아 "건설에만 10년 걸려 늦출 여유없다"

극한호우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14개 기후대응담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 주도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되는 건 2010년 보현산담(다목적댐) 착공 이후 14년 만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한강권역 4곳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낙동강권역 6곳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금강권역 1곳 ▶전남 화순군 동북천 용수전용댐 등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 피해가 증가하고, 지난해 남부지방에선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간의 가뭄이 발생했다"며, 댐 건설을 통해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쏟아져도 방어할 수 있는 홍수 조절 능력과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5억ℓ의 물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14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강권역의 수입천 다목적댐이다. 총저수 용량이 1억ℓ로, 하루 70만



정부가 30일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에 14개 기후대응담 건설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사진은 팔당댐 방류 모습. [뉴스1]

명에게 공급할 식수를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사이에 건설돼, 댐 건설로 수몰되는 민간 가옥은 한 세대도 없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댐 건설 효과에 대해 "경북 포함 냉천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다면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남 화순군 용수전용댐이 있었다면 지난해 남부지방 최악 가뭄 때 주암댐 용수 공급 상황이 '심각'이 아닌 '주의' 단계에 그쳤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댐 건설이 확정되면, 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2027년 착

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최근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더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가뭄 등의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강 분류가 아니라 해안이나 도서 지역"이라며 "실효성 없는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도 "예측불가능한 요즘 호우를 방지하기 위해선 댐 건설이 아니라, 제방 보강과 도시 계획을 다시 세우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은혜·천원필 기자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컷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p>주6일 프랜차이즈 \$32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p>	<p>주6일 Deli \$370K 인컴 \$2만 몽고메리 메릴랜드</p>	<p>주6일 Deli \$180K 인컴 \$1만 PG 메릴랜드</p>	<p>주6일 Deli \$25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p>	<p>프랜차이즈 카워시 리커</p> <p>미셸신 케빈신</p> <p>703.395.3123</p>
--	---	---	---	---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우리말 바꾸기

얼마큼

어떤 정도나 어느 만치의 수량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얼마큼’ ‘얼마만큼’이란 말을 혼용하고 있다. 모두 가능한 표현일까?

‘얼마만큼’은 잘 모르는 수량이나 정도를 뜻하는 ‘얼마’란 명사에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 ‘만큼’이 붙은 형태다. 이의 준말이 ‘얼마큼’이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큼 남았지?”와 같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만큼’이다. “불가, 얼마큼 올랐나?”처럼 흔히 쓰지만 ‘얼마만큼’ 또는 ‘얼마큼’으로 바꾸어야 한다. ‘얼마만큼’의 준말로 ‘얼마큼’이 아니라 ‘얼마만큼’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만큼’과 형태가 유사해서인지 간혹 ‘그마만큼’ ‘이마만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그마만큼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 안 오르지?” “세 행동이 이마만큼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와 같이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만큼’으로 고쳐야 바르다. 그만큼 정도로, 이만한 정도라는 뜻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 ‘그마만큼’ ‘이마만큼’으로 쓰는 것으로 보이나 ‘그만큼’ ‘이만큼’이 표준어다.

‘얼마만큼’과 ‘얼마큼’은 본말과 준말의 관계이지만 ‘그마만큼’과 ‘그만큼’, ‘이마만큼’과 ‘이만큼’은 그렇지 않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독자칼럼

김영호장로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며



허종욱
사회학박사,
전 볼티모어대 교수

한국 최초 KBS TV방송 아나운서와 미국 최초 한인 기독교방송을 개설하여 53년간 미국한인 기독교방송을 개설 운영해오시던 미국한인 기독교방송계의 개척자며 큰 별이신 김영호장로님이 지난 20일 9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김장로님을 사랑하며 아끼던 후배의 한 사람으로 이 지상에서 더 이상 뵙지못하게 됨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드내가 김장로님을 처음 뵈는 것은 대한일보 문화부 기자로 다른 신문사 문화부 기자들과 1965년 겨울 김장로님이 KBS TV 아나운서실장으로 방송계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을 때 남산 KBS TV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한국 최초 TV 방송 아나운서로서의 감회를 밝히는 간담회에서이다. 연세대 출신 김장로님은 1953년 한기독교방송에서 일하시다가 1955년 22세의 젊은 나이로 KBS 아나운서로 방송계에 몸을 담기 시작, 1961년 12월 31일 아나운서로서 한국최초 TV방송의 화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내가 김장로님을 두번째 만난 것은 1980년 봄 김장로님이 설립하고 운영해오시던 워싱턴기독교방송 후원회에서다. 김장로님은 워싱

턴 미국의 소리 방송국(The Voice of America)의 초청을 받고 공부를 더하기 위해 1966년 4월 도미, 이 방송국에서 3년간 아나운서로 활약하시다 1971년 미국의 1호 한국말 방송국 워싱턴기독교방송국을 설립, 10여년간 운영해 오셨다. 김장로님은 UCLA 방송학 석사과정을 거쳐 워싱턴 케피털 바이블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졸업했다. 김장로님은 1979년 후반 워싱턴 바이블 대학 교수로 계시던 김상복목사님이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볼티모어에 새로 설립된 벨엘교회에 교인으로 출석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매주일 예배를 드렸으며 교회를 섬겼다. 김장로님은 제직원으로 교육부서를 맡아 주일학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당시 김장로님은 방송국을 운영하시

면서 그리고 벨엘교회는 워싱턴기독교방송국을 후원하기도 결정, 김상복목사님이 방송국 이사장직을 맡으셨다. 이 때 벨엘교회가 발행하는 개인 목상 생활 안내 책자(QT) ‘오늘의 양식’이 이 방송을 통해 매일 방송되었다. 김장로님은 1988년 KBS TV 서울올림픽 프로그램 제작과 미국의 자니 카슨 쇼와 같은 ‘11시에 만나다 김영호입니다’ 토크쇼를 진행,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다시 한국에서 도미한 김장로님은 뉴욕의 미주기독교방송(KCBN) 설립, 미주에 총 6개 기독교방송국을 설립하셨다. 그리고 80이 넘는 노후에 CTS-기독교 TV 뉴욕지사방송사에서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여 한 5년 전 제2의 고향인 메릴랜드로 다시 오셔서 여생을 지내셨다. 벨엘교회는 2019년 6월 첫 번째 주에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초대목사인 김상복목사님을 초청, 말씀을 전하셨다. ‘홀 커밍 데이’로 옛 교인들을 청한 이 행사에 김장로님 내외분이 행사에 참석하셨다. 지팡이를 짚고 있으셨으나 건강하게 보이셨다. 그러나 김장로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란다.

기자의 눈

투자 기회를 놓친다는 두려움



조원희
경제부 기자

2010년대에 등장해 꾸준히 화자되는 신조어가 있다. FOMO가 바로 그것이다. FOMO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의 줄임 말이다. 즉, 개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의 성공 원인을 FOMO에서 찾는 전문가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친구들이 특별한 장소에 가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게 되면 두려움이 발동한다. 나만 재미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돈이 연관될 때 이런 조바심은 더 커진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보이는 할인 정보는 사람을 들뜨게 한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살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에 계획하지 않았던 소비를 하게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에 서둘러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된다. 사실은 아예 구매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조바심에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많다.

돈의 단위가 커지면 두려움도 커진다. 암호 화폐는 투자자의 두려움을 토대로 몸집을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시절 온라인상에서는 하루 만에 몇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심리가 사람들을 지배했다. ‘벼락거지’

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암호 화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막으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거 주식시장에 진입한 젊은 투자자들에게서도 이런 심리가 많이 엿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밈 주식으로 불리는 게임스톱 사건이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올라가는 게임스톱의 주가를 보면서 수많은 개미가 몰렸다. 기저에는 FOMO가 있었던 것이 자명하다.

최근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이 투자자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을 기술이라는 평가에 투자자들은 앞다퉈 관련 테크 기업들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주가가 몇 배나 폭등한 기업도 많았다. 자율주행, 메타버스, NFT와 같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은 여지없이 작동했다.

대부분의 개인이 가장 큰돈을 지출하는 항목이 투자 대상인 부동산에도 이러한 심리는 작용한

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매우 크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한 여성의 경험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여성은 2017년 시애틀에 있는 주택을 구매했다. 당시 주택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모기지 이자율도 3%대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이 주택의 가격은 물론 이자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여성은 만약 본인이 사는 집을 지금 산다면 월 부담액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지금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가격과 이자율이 급등하기 전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를 할 만하다. 물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샀다가 후회하는 ‘구매자의 후회’도 있을 수 있다.

한 번의 투자 성공으로 정말 인생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대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성공담’을 듣게 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정확한 투자 판단을 하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안정적인 심리상태일 수도 있다. FOMO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변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동교동 DJ 사저, 커피체인 대표에 팔렸다

LG전자·두산로보틱스 손잡고
서울시와 충전인프라 구축 MOU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도움 줄 듯
현대차도 자동충전 서비스 준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중앙포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사저가 지난 24일 매각됐고, 매수자는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로 파악됐다.

‘동교동 사저’(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의 대법원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결과 박모(51)씨 등 3명은 지난 24일 김홍걸 전 의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4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지분은 박씨가 20%, 정모씨가 60%, 또 다른 정모씨가 20%로 나뉘었다.

세 사람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아파트로 명기돼 가족으로 추정된다. 매매대금은 100억원이며, 등기상 시중은행 근저당이 96억원으로 잡힌 것에 미뤄볼 때 8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대법원 법인 등기를 살펴본 결과 박씨는 전국에 59개 점포를 둔 커피프랜차이즈업체 A사의 대표였다. 또한 전국에 35개 지점을 가진 B바리스타학원의 대표이자,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관하는 협회 대표이기도 했다. 동교동 사저 변경 150m 이내에도 A사의 카페 1개, 창업지원센터 1개, B바리스타

학원 1개가 영업 중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사저를 매입한 것도 카페 등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실제 박씨는 매입 후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야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듣지 못했지만 1층 일부에 기념공간을 만들고, 별도의 차고 건물은 증축할 거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동교동 사저가 상업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에 일부에선 당혹감도 감지된다. 동교동 사저는 DJ가 1961년 입주한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일산 사저 생활 기간 등을 빼고 2009년 8월 서거할 때까지 즐겼던 곳이다. 2019년

6월 서거한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DJ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은 이 여사 서거 후 형제 간 유산분쟁을 겪다 2021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상의 없이 이번에 사저를 매각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며 “사저에 DJ기념관을 만들진 못했지만, 목표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성·김정재 기자



이게 다 짝퉁입니다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관이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을 공개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상반기 단속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1]

세계은행 첫 디지털전환 부총재에 김상부

정통부·LG·구글 등서 경력 쌓아
한국 국적으론 사실상 최고위직



질이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40기)에 합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이었던 정보통신부에서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일했다.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한 뒤 LG유플러스·구글 등 국내외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에서 근무했다.

김상부(52·사진)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에 선임됐다. 세계은행 최고위직에 한국인이 진출한 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계은행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 부총재직은 세계은행이 디지털을 통해 개도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직위다.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디지털·데이터 인프라 구축·제고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 등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 경쟁을 통해 선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경력을 쌓았던

한국인이 세계은행 최고위급인 부총재에 진출한 건 1955년 세계은행 가입 이후 최초다. 앞서 세계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김용 전 총재는 미국 국적자다. 세계은행 고위 임원단 조직도를 보면 총재 1명과 사무총장 4명, 부총재 27명으로 구성된다. 김 내정자는 오는 9월 3일부터 근무한다.

이우림 기자

불편한 전기차 충전, 이제 로봇이 척척

LG전자·두산로보틱스 손잡고
서울시와 충전인프라 구축 MOU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도움 줄 듯
현대차도 자동충전 서비스 준비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을 탈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는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도 로봇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LG전자와 두산로보틱스는 30일 서울시와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전자는 2026년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물, 공원, 주차장 등에 급속 충전기 50대 이상을 설치한다. 이 가운데 10대는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로봇 충전 기술이 도입된 충전기를 설치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전기를 충전하도록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두산로보틱스는 LG전자의 급속(100~200kW) 전기차 충전기에 협동 로봇을 접목한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충전기 설치 부

지 후보 제공, 임대, 인허가 등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로봇 충전 솔루션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에서 운전자가 충전 가능 구역에 주차하고 충전구를 열면 충전 로봇이 스스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한다.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도 직접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 없이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스템은 완속 충전기 대비 케이블이 크고 무거워 다루기가 쉽지 않다. 로봇 충전 시스템이 도입되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일찌감치 전기차 충전 로봇 시장에 뛰어 들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유튜브 등을 통해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 Automatic

Charging Robot)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차량이 충전 가능 구역에 주차되면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과 차량이 서로 통신해 충전구 덮개를 자동으로 연다. 현대차는 3분기 중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팩토리얼 성수 빌딩에서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타고 온 전기를 주차 로봇이 충전 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이후에는 충전 로봇이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 충전해주는 시스템이다. 현대차는 이밖에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옥외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바람, 폭염, 폭설 등에서도 충전 로봇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막바지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 기술 시장은 완성차 업체 뿐만 아니라 전자·로봇 기술기업들도 속

속 뛰어들며 성장하고 있다. 독일 컨설팅 업체 롤랜드버거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연평균 32.3%씩 성장해 2030년 약 3250억달러(약 451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은 9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규모로 7배가량 커질 것으로 SNE리서치는 예측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0만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는 30만 5309대 수준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운전자 편의를 위해 초고속 충전기를 늘리고 있다. 현대차는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E-pit)를 2025년까지 500개 구축할 예정이고, 테슬라는 자사의 충전인프라인 슈퍼차저 163개를 국내에서 운영 중이다.

박영우 기자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 건너편)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시 설

만시지탄인 제2부속실 설치...자성과 자숙이 먼저다

대통령실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가까이 다 돼 가고,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로도 5개월이 넘는 시점이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해 온 만큼 당정 화합의 모양새를 의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부정평가(63%)의 이유 중 2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여론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런 비정상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명품 백 수수 등 김 여사 본

**배우자 문제가 더 이상 국정에 부담 줘선 곤란
용산 내 ‘여사 라인’ 정리, 특별감찰관도 추진을**

인으로부터 시작된 각종 논란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분노와 피로감을 줬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 모두 먹고살기 힘들고, 전 세계가 패권 경쟁으로 격동하고 있는 때에 이런 소모적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질질 끌고 온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제라도 제2부속실에서 김 여사 관련 일정, 메시지, 예산 등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도있게 관리해 더는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는 제2부속실 설치보다 김 여사 본인의 자성과 자숙일 것이다. 변호사 전언을 통해 얼마 전 검찰의 출장조사 때 “김 여사가 검사 앞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고, 이

런 사과는 쉽지 않은 사죄이고, 진심 어린 마음”이란 ‘대리 사과’를 하는 식의 처신은 여전히 자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사과란 무릇 사과받을 사람에게 하는 법이다. 왜 국민에게 할 사과를 밀실의 검사에게만 하는가. 무엇보다 제2부속실 출범에 앞서 대통령실 내의 ‘여사 라인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시종에는 실명이 적시된 ‘육상시(六常侍)’ 명단이 돌아다니지 한참이다. 대선 3개월 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약속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면 비선 논란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2부속실이 생겨도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으니 국회도 머뭇거리기 이유가 없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직된 뒤 지금까지 8년째 공석 상태다.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과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이라도 받겠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할 때다. 야당도 문제 해결보다 정치 공세의 몽니만 부릴 게 아니다. 다수당인 만큼 야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2부속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속가능한 법제화에 나서길 바란다.

‘티메프’ 자산·채권 전격 동결...고객 피해 최소화 전력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서울회생법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회생이 결정될 때까지 특정 채권자의 빚만 골라서 갚을 수 없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아직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기업회생이 개시될 때까지 대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받을 돈이 쪼그라들 수 있다.

그동안 “기업회생 신청은 최악의 사태”라고 했던 티메프가 기습적으로 법원행을 결정한 건 유감스럽다. 엇그제 오전엔 구영배 큐텐 회장이 보유 지분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돌연히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돈을 받아야 하는 판매업자 입장에서선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정부 추산으로 티메프의 미정산 판매금액은 2134억원이지만 아직 정산 기일이 돌아오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어제 국회 정부위에 나온 구영배 큐텐 회장은 전체적인 미정산금 규모나 행방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다. 판매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미정산금 행방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자금을 추적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정부위 답변에서 큐텐과 티메프의 행태가 “양치기 소년 같다”고 표현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사기”라고 평가했다. 감독 당국과 검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거짓과 불법을 명백히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에는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전자상거래업체인 티몬과 위메프, 이들의 모회사인 큐텐이 고객 지불한 돈을 판매자에게 최대한 늦게 지급하고 이 자금을 다른 곳에 굴리며 사실상 금융회사처럼 움직였는데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이 커져 2022년 금융감독원은 이들과 경영개선계약(MOU)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미정산금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같은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줄여달라는 납품업체의 요구가 빚받았지만 당사자 간 계약 문제란 이유로 방치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도 시가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결제 주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강제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정부의 감독 소홀과 제도 개선 부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머지포인트 사거나 티메프 사태 모두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터졌다. 저건 내 일이 아니라는 지금의 칸막이 보신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2의 티메프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탄핵이 시대정신일 순 없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때로 민주주의는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든 무너진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들이 후속작에서 든 예는 페루다.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무능한 상태라고 의회의 재적 3분의 2가 판단할 때 대통령직은 공석이 된다’(탄핵)는 헌법 규정이 무기가 됐다. 야권이 대통령직을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 재적 3분의 2를 모았고,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무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안은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도덕적 무능’의 법리를 적용”해서다.

이른바 ‘대통령 사냥 시즌’이 시작됐다. 2018년 쿠친스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에 사임했다. 2020년 11월 후임자인 비스카라도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물러났다. 2021년 선출된 카스티요도 의회의 탄핵 시도 끝에 이듬해 12월 관났다. 저자들은 “대통령 탄핵은 이제 산수(算數)의 문제가 됐다”고 썼다.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 한때 우리에게 탄핵은 금기어였다. 일부 보수 세력이 가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도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 탄핵이 갖는 예외적·최후적 비상수단이란 본질 때문이다. 하지만 거야(巨野)에 의해 일상이 됐다. 통상적·선제적 일반 수단이 됐다. 그리하여 최초의 판사 탄핵안 가결은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고, 최초의 검사 탄핵안 가결이 뒤따랐다.

방통위에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방통위원장이 물러나는 일이 두 차례 반복됐다. 급기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도 같은 운명이 됐다. 이젠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후보자 꼬리표가 떨어지면 탄핵당할 것”이란 예고까지 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도 정치작업 중이다. ‘탄핵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란 기괴한 방식의 청문회를 열었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가 불출석하니 그걸 빌미로 또 탄핵을 키우고 있다.

야당 지도부 선출 과정은 탄핵 의지를

벼르는 무대가 되고 있다. 누가 더 먼저 밝혔는지, 누가 더 강한지로 경쟁한다.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44번이나 ‘탄핵’ 유의 단어가 등장했다고 하지 않나. 누군가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탄핵”이라고도 외쳤다.

그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정도가 심해졌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긴 어렵다. 진보 다수인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기각 결정을 했다.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 대부분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인들이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사유 중에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조장하며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했다’도 있던데 김정은에게 따질 얘기 아닌가. 거야의 탄핵은 그저 탄핵할 힘이 있으니 탄핵하는 것이다. 망치를 들었으니 때리고 보는 심리다. 그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테

**야 지도부선 “내가 탄핵” 경쟁
탄핵을 정치 무기 삼는 건 잘못
대통령도 변화 요구 외면 말아야**

고 말이다. 옳은 길이 아니다. 탄핵은 우리가 합의한 국가 운영 프로세스에 절단면을 내는 것이다. 봉합되기보단 뿔나기 쉽다. 일방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이다. ‘박근혜 탄핵’이란 폐허에서 몸을 일으킨 문재인 정권이 통합 대신 적폐 청산을 택했을 때부터 항로는 뒤틀렸다.

물론 지금의 탄핵안 대부분은 현재가 외면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두려운 건, 탄핵이 일상적 정쟁 도구화하는 데 따른 후과다. 더한 정쟁, 더한 공백으로 이어질 게 뻔해서다. 민주당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도 문제는 있다. 민심에 반응해야 할 때 외면해 더한 냉소와 반발을 불러서다. 책임론의 시선을 민주당이 아닌 자신에게 머물게 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진 않겠지만, 탄핵을 방임하는 심리”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도(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탄핵이 시대정신일 순 없다. 정치인의 책임성을 묻는 장치가 선거여지 탄핵일 순 없다. 우린 페루가 아니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작·배부처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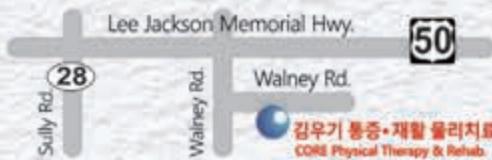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aquaviwater.com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179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249

알칼리수 \$219

알칼리수 \$23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 무료 설치
-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 SAVE MONEY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July 31, 2024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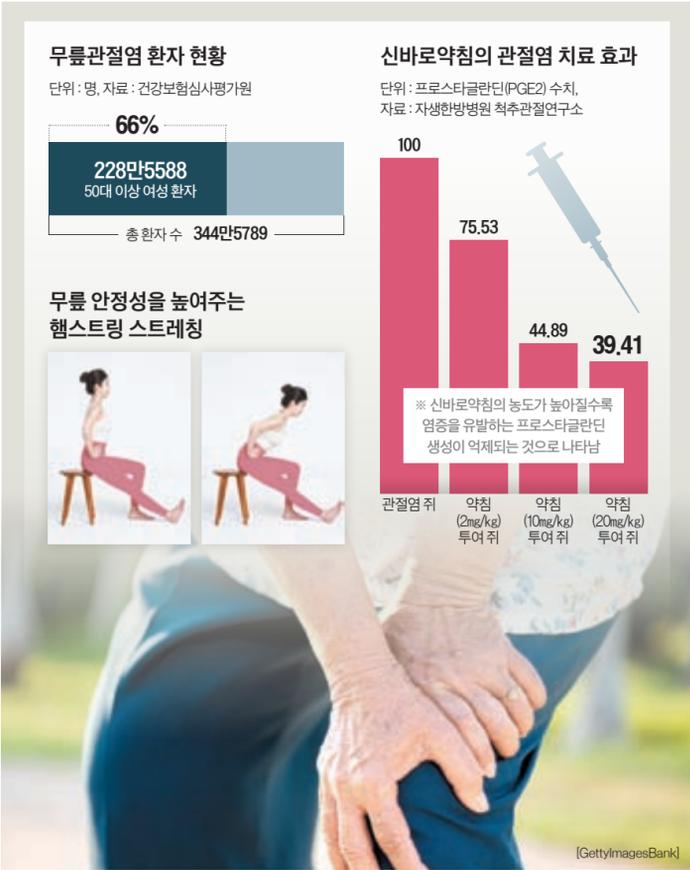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증법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유·무산소 다 되는 '계단 운동' 상체 기울여 무릎 부담 덜어야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오는 기간에는 산책 같은 가벼운 야외 활동도 어려워진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살도 찌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쉽다. 이럴 때는 건강을 위해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실내체육시설로는 헬스장이 있다. 과거 헬스장 유산소 운동하면 러닝머신만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끊임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스텝밀머신, 일명 '천국의 계단'이 인기가 높다. 높은 열량 소모 효과 때문이다.

속도 등 수위조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10분에 100kcal 이상이 소모된다. 평지를 걸을 때(40kcal)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열량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관리로도 유명한 가수 정지

헬스장선 '천국의 계단' 등 인기 심혈관 질환 사망위험 39% 낮춰 잘못된 자세 반복 땀 관절염 유발 침·한약으로 염증 제거, 통증 완화

훈(비)도 계단 운동을 즐긴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약과쿠기 등 고칼로리 디저트를 언더아 섭취하고는 계단 운동을 한 시간 동안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계단 내려가는 행동은 무릎에 독 될 수도 계단 오르는 유산소뿐만 아니라 영

덩이, 허벅지 등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무산소 운동의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덕분에 심혈관계, 근골격계 기능 강화 외에 균형감각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 실제로 최근 유럽심장학회 학술대회 '예방심장학 2024(ESCPrev 2024)'에서는 계단 오르기 수명 연장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계단 오르기를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9%나 낮았으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 운동은 지하철과 건물 계단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지만, 평소 무릎 통증이 있거나 무릎 주변부 근육 및 인대가 약한 이들은 주의해야 한다.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단을 내려가는 행동은 무릎에 부하를 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 있을 때보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는 약 5배 정도 증가한다.

무릎 관절에 심한 압박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거나 외상을 입으면 무릎뼈 사이에 위치한 연골에 손상이 일어나며 관절염이 발생한다. 무릎관절염은 갱년기 이후 근육과 뼈가 급격히 퇴행하는 중년 여성에게 빈발하는 모습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무릎관절염 환자(약 344만 명) 중 50대 이상의 여성 환자 수(228만 명)는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릎 연골은 손상을 입으면 지우개처럼 닳아 없어지고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염증이 진행될수록 손상 부위가 점점 광범위해지며 퇴행은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할 경우 오다리나 같은 신체 변형이 발생하고,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없어져 무릎뼈끼리의 마찰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신민식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4면 '계단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여름철 A형 간염 기승... 감기와 비슷한 B·C형 간염은 간암 주원인

간염 종류별 특징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겨 간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형에 따라 A·B·C·D·E형으로 나뉘는데, A·B·C형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B·C형 간염의 경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변증으로 발전해 간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국내 간암 발생의 절반 이상은 간염이 원인이다. 세계 간염의 날(7월 28일)을 계기로 주요 간염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본다. 신영경 기자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철엔 A형 간염이 기승을 부린다. 주로 대소변에 오염된 손과 물, 음식을 통해 입으로 감염된다. 특히 오염된 물에서 자란 조개류를 익히지 않고 섭취할 때 감염 위험이 커진다. 감염 환자를 통한 수혈과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해도 감염될 수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오면 4주간 잠복기를 거쳐 발현한다. 전염성이 높지만,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2040,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낮아

초기엔 감기처럼 열이 나고, 전신 피로감이나 식욕 감소 등이 나타난다. 구토·복통·설사가 생기기도 해 감기·몸살이나 위염으로 질환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엔 소변 색이 짙어지고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환자가 이때 A형 간염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이런 증상도 연령대가 낮으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기에 감염되면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20~40대가 A형 간염에 가장 취약하다. A형 간염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항체 보유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다행히 급성 A형 간염은 한번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평생 면역을 유지해 만성 간염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 증상은 1~2주 내 저절로 호전되지만 소수 환자에서 간부전이 동반돼 간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간암 환자의 약 60%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체액·분비물로 감염된다.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사람과의 성 접촉이나 오염된 면도날, 주사기 바늘을 공동 사용하면 위험하다. 특히 국내에선 모자간 수직감염이 주요 감염 경로로 알려졌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전파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급성 B형 간염도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난다. 미열이나 구토, 식욕부진 등이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간 수치와 정상인 경우가 많아 따로 관리나 치료를 하지 않고 질환을 방치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환자가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겨 간경변으로 진행된 후야 병원을 찾는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검진을 통해 간암을 진단받는 일이 많다. 따라서 수직감염 가족력이 있거나 B형 간염 양성인 경우 증상 유무, 간 수치와 상관없이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A형, 전염성 높지만 회복속도 빨라 B·C형은 혈액·체액·분비물로 감염 만성화 땀 간경변, 간암 진행될수도”

C형 간염 내년 국가건강검진 포함

급성 B형 간염은 95% 이상은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회복한다. 하지만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하면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 B형 간염의 5~10%는 만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성 B형 간염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치료한다.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진 못하지만, 염증이 지속하는 것을 막고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도 B형 간염만큼 심각한 간 질환을 유발한다. 국내 간암 발생 원인의 약 10%는 C형 간염이다.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과 체액, 분비물을 통해 감염된다.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는 전염되지는 않는다. 정맥주사 약물 남용, 주사침 찔림 손상, 문신 등 오염 혈액에 노출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한다. 환자의 대다수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않는다.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감기 증상과 소화기관의 불편감을 주로 호소한다. 복수나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간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때가 많다.

C형 간염은 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감염되면 70~80%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그중 30%는 간경변증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간염을 거쳐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급성 C형 간염에서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만성 C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간세포와 혈액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엔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개발돼 단기간 95% 이상 완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완치 후에도 안심해선 안 된다. C형 간염의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은 애초에 감염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예방을 위해선 백신 접종과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섭취'를 통해 경구 감염되므로 식사 전후나 배변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음식물은 충분히 끓여서 먹는다. 85도 이상에서 1분만 끓여도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라진다. A·B형 간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예방 접종으로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는 백신과 함께 면역글로불린(HBIG)을 같이 주사해야 한다. C형 간염의 경우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간염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C형 간염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의 칼럼 김주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생존 기간 2배 증가... 폐암, 더 이상 두려운 암 아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암이다. 한 해 전체 사망자 5명 중 1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2022년 통계청 기준 22.4%). 그중에서도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다. 국내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한다. 실제 2022년 국내 폐암 사망자는 1만8584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22.3%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역시 36.3명으로 단연 많다. 간암(19.9명), 대장암(17.9명), 췌장암(14.3명), 위암(13.9명) 등이 뒤를 잇는다.

폐암이 무서운 암으로 꼽히는 이유는 조기 진단이 어렵고 생존율이

낮다는 데 있다. 실제 폐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이 쉽지 않다. 조기에 진단되는 환자는 전체의 5~15%에 불과하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 또 폐암으로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38.5%에 불과하다(2017~2021년 기준). 그마저도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이상 전이성 폐암은 5년 생존율이 10% 아래로 푹 떨어진다. 전체 암의 5년 생존율 71.1%보다 턱없이 낮다. 그만큼 치료가 힘들고 생존율이 낮은 암

이 폐암이다.

최근 폐암 치료에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치료 등 새로운 항암 전략이 속속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폐암은 더 이상 두려운 암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다른 암에 비해 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금연과 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폐암 치료는 최근 면역항암제가 표준치료로 자리 잡고 가고 있다. 암 치료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표준치료로 면역항암제를 권고한다. 치료 성적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세계폐암학회가 발표한 면역항암제 1차 치료의 장기 생존 치료 성적을 보면 4기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 병용 치료 시 생존 기간이 기존 10.6개월에서 22개월로 2배 증가했다. 또 2년간 면역항암제 1차 치료를 완료한 환자의 80.4%가 4년간 생존했다. 국내 4기 이상 전이성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역항암제가 보인 성과는 눈부시다.

더불어 수술 후 재발이 높은 2, 3기 환자에 대한 수술 전·후 항암 치료가 도입되며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속속들이 연구되고 있고, 곧바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완치되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열심히 다니면서 잘 조절하면 되는 것처럼 폐암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중 하나로 생각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해 적극적으로 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눈 외상
원인 강한 자외선 노출로 각막 표면에 화상·염증 유발
예방 모자 쓰고 자외선 차단용 안경·선글라스 착용



귀 외상
원인 귀 내부의 강한 마찰과 자극으로 고막 손상
예방 귀 보호용 귀마개 쓰고 과도한 면봉 사용 자제



치아 외상
원인 넘어지거나 부딪쳐 치아 빠지거나 일부가 깨짐
예방 건조하지 않은 채 즉각적인 치료로 치아 수복



스포츠 외상
원인 물에 휩쓸리고 강한 반동 받아 근육·관절 부상
예방 운동 전 체온 올리고 이완, 부위별 안전용품 착용

뛰약별 해변에선 자외선 각막염, 물놀이 할 땐 고막 상처 조심

여름철 주의해야 할 외상

여름엔 휴가철과 맞물려 평소보다 야외에서 활동할 일이 많아진다. 바다나 강, 계곡에 놀러 가 물놀이나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산이나 캠핑장,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전거를 타며 자연을 만끽한다. 이때 주의할 건 외상이다. 모처럼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만나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자칫 부주의해서 건강을 놓칠 수 있다. 크고 작은 외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다.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주요 외상 질환을 알아두고 적절하게 대처해 건강하게 여름을 나자.

김선영 기자

눈 외상

강한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눈의 노화를 촉진하는 데다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망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황반변성·백내장이 악화하고 시력 감퇴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건 각막 화상으로 불리는 자외선 각막염이다.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화상을 입듯 각막 상피세포에 일시적인 화상 증상과 함께 염증이 생기는 급성 안 질환이다.

각막이 화상을 입은 순간엔 자각 증상이 없지만, 반나절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눈이 따갑고 가려우거나 통증, 이물감, 눈부심, 시력, 충혈, 눈물 흘림을 호소한다. 각막 화상이 의심될 땐 일단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으로 냉찜질해 화상 부위를 진정시킨 다음 가급적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안과에선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인공눈물, 항생제, 항염증 안약·경구약 투여로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각막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초기 처치가 잘 이뤄진다면 대부분 수주일 내 회복할 수 있다.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황규연 전문의는 “햇빛처럼 강한 빛은 황반부 시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직접 쳐다보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대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땐 가급적 챙이 있는 모자를 착용하거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자외선 차단용 안경·선글라스는 렌즈와 테가 눈과 눈 주변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선글라스의 경우 색이 너무 짙으면 동공을 확대해 오히려 자외선 흡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컬러 농도가 75~80%인 제품이 적당하다. 시력 보호를 위해 햇빛에 비취 표면에 흡집이 없는지, 사물이 굴절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귀 외상

물놀이를 즐길 땐 귀 부위 외상을 조심한다. 다이빙이나 수상 레저를 즐기는 도중 수면에 귀 부위의 강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연약한 고막 조직이 찢어져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외상성 고막 천공이다. 귀에 물이 들어가 면봉으로 물기를 무리하게 제거하려다 귀 내부나 고막에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다. 고막은 외이와 중이의 경계에 위치하는 타원형의 얇은 막이다. 중이의 방어벽 역할을 하고 음파를 진동시켜 소리를 전달하는 일도 한다. 노원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안용희 교수는 “이런 고막에 천공이 생기면 통증이나 출혈, 청력 저하, 이명,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상성 고막 천공은 염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연 치유를 유도할 수 있다. 고막은 하루에 약 0.05mm씩 재생되므로 1개월 이내에 대부분 고막이 막힌다. 상처 부위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손상된 고막과 외이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항생제를 투여해 감염을 방지한다. 이명과 난청이 심할 땐 인조 고막을 상처 부위에 대주면 증상 완화와 고막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개월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으면 천공된 부분을 메워주는

고막 성형술을 고려한다. 귀 주변의 지방이나 근육, 연골막을 조금 떼어내 이식하는 방식이다. 수술은 대개 귀구멍을 통해 이뤄지므로 눈에 보이는 흉터가 남지 않으며 수술 후 잠시 어지러울 수 있으나 금방 회복한다.

여름철 귀 건강을 지키려면 귀 내부에 과도한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영, 다이빙을 즐길 땐 귀를 보호하기 위해 귀마개 사용을 권한다. 물놀이, 샤워 후 면봉을 사용할 땐 외이도를 과도하게 후비지 않는다. 안 교수는 “귀에서 진물이 나거나 청력이 떨어진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선글라스 컬러 농도 75~80% 적당 수영·다이빙 땐 귀마개 착용 도움 수상 스포츠는 준비 운동 필수 ”

치아 외상

여행지에서 치아가 부러지거나 수복물이 빠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럽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가 뿌리째 빠진 경우가 특히 그렇다. 서울대치과병원 원스톱협진센터 김옥성 교수는 “치아 외상 중 가장 응급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빠진 치아를 찾고 치아 뿌리 쪽이 아닌 치아머리 부분을 잡고 치아가 빠진 위치에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빠진 치아가 오염됐을 땐 우유나 식염수, 침으로 부드럽게 헹구고 원래 치아 자리에 넣는 것이 좋다.

뿌리 표면에 있는 세포가 죽기 전에 가능한 빨리 치과를 찾아 후속 조치를 받는다.

이런 처치가 불가하거나 치아를 재위치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될 때, 치아 뿌리가 온전하지 않을 땐 빠진 치아를 우유, 식염수, 침이 담긴 보관용액에 넣어 즉시 혹은 가능한 60분 이내에 치과를 찾아 응급 처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전에 치료받았던 수복물·보철물 등 치과 재료가 빠지거나 부러졌을 땐 해당 재료를 버리지 말고 지참해 가고, 단순히 치아머리 부분이 깨진 경우라면 부러진 치아 조각을 식염수에 담긴 상태로 치과에 간다. 부러진 치아 조각을 활용하면 치료가 훨씬 수월해진다.

넘어지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실수로 깨물어 입술이나 혀가 찢어지는 사고도 발생한다. 이럴 땐 소독한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압박해 지혈한다. 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한정준 교수는 “입술이나 혀의 찢어짐이 표면에 국한된 경우 봉합 없이도 대체로 잘 치유된다”며 “하지만 상처 깊이가 깊거나, 상처가 벌어지거나 오염원이 상처에 존재할 경우 잘 낫지 않고 감염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드물게 입술 변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외상

물 위에서 즐기는 운동은 고강도의 체력을 요구한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스릴을 즐기려다 부상당해 장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 물살을 가

르는 재미를 추구하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가 대표적이다. 이들 운동은 시속 40~50km 이상으로 달리는 모터보트의 줄을 잡고 몸을 좌우로 틀며 주행한다.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목별 보고서’에 따르면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를 즐기는 생활체육인의 경우 어깨(14.7%), 손목(13.3%), 발목(12%) 손으로 부상을 많이 당했다. 파도에 휩쓸리거나 몸이 뒤집혀 팔이 잘 쓰지 않는 방향으로 쭈이면 어깨 탈구나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 있다. 점프나 회전, 착지 과정에서 무리하면 손목·발목이 빠기 쉽다. 인대가 손상되면 심한 부기와 통증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않을 경우 고질적인 염좌로 악화한다. 부상을 당했다면 당장 활동을 멈추고 냉찜질로 손상 부위의 대사 활동을 줄이고 손상 부위를 적절히 압박해 출혈·부종을 최소화한다. 자칫 잘못 손 쓰면 더 악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전문 처치를 받는 것이 좋다.

부상 없이 수상 스포츠를 즐기려면 무리한 강도의 운동은 지양한다. 실력을 과신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한다. 체온보다 낮은 수온의 물에서 활동하면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외력이 가해져 다칠 확률이 커진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 몸에 열을 내고 이완된 상태로 만든 다음 운동에 나선다. 부위별 안전용품 반드시 착용하고 운동 중 탈수·탈진·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중간중간 수분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하며 한 번에 20~30분 정도만 즐긴다.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렌즈꺼도 시야 흐릿하다면 난시 체크... 알콘 전용 워터표면렌즈 수분감 우수”

인터뷰 제이슨 호프 알콘 아태 비전케어 사업부 대표 보는 능력인 시력이 나빠지면 운전·쇼핑·요리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줄면서 일상이 불편해진다. 단순히 잘 보이니 괜찮다고 안심해 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굴절 이상인 난시로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어도 교정하지 않는 등 난시 교정률이 낮다. 제이슨 호프 알콘 아시아-태평양(APAC) 비전케어 사업부 대표에게 선 명하고 밝은 시야를 지키기 위한 난시 교정의 필요성과 난시용 콘택트렌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들었다. 글로벌 안과 전문기업인 알콘은 시력 개선을 통한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혁신적 제 품을 공급한다.

권선미 기자

“난시 교정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난시는 근시·원시만큼이나 흔한 굴절 이상이다. 눈의 각막이 매끈한 공처럼 둥근 완전한 구형이 아닌 럭비공처럼 길쭉하면서 뾰족하게 솟아 있는 비대칭으로 생기면서 눈의 굴절력이 고르지 않은 상태다. 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굴절도가 달라져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다중 초점으로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인다. 난시로 전반적인 시각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난시 정도가 심하면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흔들려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시야가 선명하지 않아 운전 등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유소아기 난시는 시(視)기능 발달에 부정적이다. 난시 교정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은 난시 교정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한국은 난시 교정을 위한 렌즈 처방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낮다. 난시용 렌즈 처방이 낮은 근본적 이유는 소비자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렌즈를 착용했다 중단한 사람의 65%는 난시가 있었다는 해외 조사 결과도 있다. 이들이 렌즈 착용을 중단한 이유는 안구 건조감, 시력 교정과 불만족 등이었다. 난시에 대한 인식도 떨어진다. 자신에게 난시가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난시용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난시는 안구 모양에 따라 나이의 상관없이 있을 수 있다. 잘 보이더라도 시력 등 전반적인 눈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다. 난시가 아니더라도 중년 이후부터는 눈 조 절력이 약해져 노안이 생기고, 백내장·녹내장·황 반변성 등 안과 질환으로 시력이 떨어지기 쉽다. 눈 건강은 아직 잘 보일 때 지켜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난시를 의심해야 하나.



호프 대표는 “난시가 있으면 근시·원시 등 시력을 교정해도 시력 만족도가 떨어져 난시 교정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미연 객원기자**

“난시, 근시·원시만큼 흔한 굴절 이상 근시·원시만 교정해선 만족도 낮아 난시 교정 기능 추가된 제품 써야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사물이 선명하게 보 이지 않거나 사물이 겹쳐 보일 때다. 근거리 작업 으로 눈 피로감이 느껴지는 안정피로가 있을 때 도 난시를 의심한다. 렌즈 등으로 시력 교정을 했 는데도 여전히 시야가 흐릿하거나 사물이 겹쳐 보 인다면 난시 여부를 점검해 보길 바란다. 난시는 단독으로 있기보다는 근시·원시 등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난시가 있으면 근시·원시 등 시력을 교정해도 시력 만족도가 떨어진다. 눈 의 어느 방향으로 난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난시 교정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써야 한다. 눈 상태에 따라 난시용 렌즈로 난시+근시, 난시+원시를 동 시에 교정할 수 있다.”

“다음 달 한국에 출시할 예정인 프리시전 원 난 시다. 이 제품 출시로 알콘의 난시용 콘택트렌즈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난시 교정이 필요한 소비 자가 자신의 눈 상태, 착용 패턴, 라이프스타일 등 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은 글 로벌 콘택트렌즈 트렌드를 선도한다. 렌즈에 대 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높고 혁신적 제품에 대한 수용성도 높다. 알콘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은 중요한 국가다. 이번에 한국에서 출시하는 프리 시전 원 난시는 안정적인 난시 교정을 위해 난시 축 회전을 방지하는 알콘만의 난시 디자인이 적 용됐다. 눈을 깜빡일 때 렌즈가 좌우로 돌아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4·8시 방향에 축 안정화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난시 교정이 가능하다.”
“워터표면렌즈로 촉촉한 착용감을 강조하고 있다.
“각막 표면에 직접 닿는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 면 눈이 건조해지기 쉽다. 요즘엔 스마트폰 등 디 지털 기기의 사용이 늘어, 눈을 덜 깜빡이면서 안 구 건조감을 더 쉽게 느낀다. 일반적인 눈 깜빡임 은 1분에 15회지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눈 깜 빠임 횟수가 5~7회로 줄어든다. 눈을 덜 깜빡이 면서 눈물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눈물이 빠르게 증발해 눈이 건조하다고 느낀다. 난시 렌 즈 착용자는 근시·원시 렌즈 착용자보다 안구 건 조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보고도 있다. 알콘이 렌 즈 표면의 눈물막 안정성에 기반해 편안한 착용 감을 제공하는 워터표면렌즈를 강조한 배경이다. 알콘의 워터표면렌즈는 우수한 수분함수율의 표 면 재질로 결합돼 있어 촉촉한 수분감을 제공한 다. 이런 특징으로 눈물막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안구 건조감을 개선한다. 워터표면렌즈는 선명한 시야를 오후까지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이케어(eye care)를 위한 알콘의 계획이 궁금 하다.
“알콘은 인류 보편적 눈 건강관리에 집중한다. 선명한 시야를 위한 혁신적 제품의 접근성을 높 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 이 목표다. 눈이 잘 보여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이를 위해 난시 등 눈 건강 인식 향 상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안과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혁신적 제품 개발로 인류의 밝은 시야를 위해 헌 신하자(We help people see brilliantly)는 것이 알콘의 소명이다.”

▶ 1면 '계단 운동'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가만히 있어도 무릎 통증 이 심하거나 무릎 주변 부종, 열감 등 으로 걷는 데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신 속히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 는 것이 현명하다.
한의학에서는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무릎 관절염을 치료한다. 먼저 내출안, 외 술안, 양릉천 등 주요 혈자리에 실시 하는 침 치료는 통증 완화와 기능 개 선 효과를 보인다. 특히 침 치료는 노 인 및 여성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실 시하면 수술률이 약 80% 감소한다는 자생한방병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신 바로약침과 황령해독 약침 등 한약제 주요 성분을 함유한 약침은 빠르게 염

증을 제거한다. 여기에 근육, 인대 강 화와 연골 보호에 탁월한 모과 등의 한약재로 조제한 숙지양근탕 처방을 병행하면 더욱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약침의 항염증 효과는 과 학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 다. SCI(E)급 국제학술지 '중의학 (Chinese Medicine)'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신바로 약침이 염증 물 질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연구소가 골관절염을 유발한 쥐를 대 상으로 진행한 비교 연구결과, 신바 로 약침을 투여한 그룹이 투여하지 않 은 그룹보다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 스타글란딘2(PGE2)' 생성이 약 60% 억제됐다. 또한 연구팀은 뼈의 구성

요소이자 뼈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주골의 부피가 40% 증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치료보다 앞서야 하는 건 애초에 다 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태도다. 부 상 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운동 전에 5~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자. 허벅지 뒤쪽에 위치한 근육인 햄스트 링을 풀어주면 무릎 관절 안정성이 높 아진다. 계단을 오르기 전, 먼저 의자 에 앉아 왼쪽 다리는 90도로 두고 오 른쪽 다리는 일자로 뻗는다. 이때 오 른쪽 발뒤꿈치는 바닥을 딛고 발가락 방향은 천장을 향하게 한다. 이후 상 체를 앞으로 숙이며 허벅지 뒤쪽을 천 천히 이완시킨다. 약 10초 동안 유지한 뒤 원래 자세로 돌아와 다리를 바꿔 준다. 이 동작을 좌우 3회씩 반복한다.

무릎관절염, 50대 이상 여성이 전체 66% 계단 운동 시 무릎에 무리를 주는 자 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된 자세인지 아닌지는 운동 후 나의 몸 상태를 점검하면 유추 가능하다. 계단 운동 후 허벅지와 엉덩이 등에 적당한 근육통이 느껴지는 정도는 괜찮지만, 무릎관절이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때에는 자신의 운동 강도나 자세에 문 제가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기 위 해서는 발바닥 전체가 안정적으로 계 단에 닿도록 해야 한다. 허리는 곧게 세우기보다는 무게 중심이 약간 앞으 로 갈 수 있도록 기울인다. 자연스레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이 사용되며 무릎 부담이 경감된다. 만약 헬스장 의 등산 등 다른 장소에서 계단을 내

려간다면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내려 가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건 물에서 아래층으로 이동 시에는 엘리 베이터를 이용해 무릎의 부담을 줄이 는 것이 좋다.
무릎은 신체 대부분의 무게를 지탱 하는 관절로 외상 및 관절염에 취약하 다. 특히 정상 체중보다 1kg 증가할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약 3kg 이상 증 가한다. 따라서 식이조절 등을 통해 체중을 조금만 감량해도 무릎에 가 해지는 부하를 줄여 통증 및 증상 완 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 요하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통해 나의 건강한 삶을 이어가 보도록 하자.

신민식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 더더 많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한방 칼럼

입맛이 나를 살린다 (1)

어린 아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으면 잘 놀면서 건강하다. 그런데 뭔가 불만족하면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매운 것을 먹어야 힘도 세지고 어른된다고 달라고 협박해도 유독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경우도 있다. 편식하면 안 되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젓가락이 더 가는 반찬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건강을 위해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소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잘 안 된다고 고민한다.

먹는 행위는 이성으로 결정하고 통

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아니 그렇 게 생각으로 자주 먹는 것을 분별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오히려 몸의 자연스 러운 흐름을 거스르게 된다.

그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무엇인가를 자주 먹으려고 할까? 혹은 골고루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같은 음식만 먹고 싶은 걸까? 편식도 과식도 모두 이유가 있다. 배가 터지게 먹어도 계속해서 먹을 것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 가가 있다는 것이다. 정말 먹고 싶고 몸 이 필요로 하는 것은 먹지 못한 채 영



권진열
헤민한의의원장

푹한 것들로 배를 채우다 보면 원하는 것이 들어올 때까지 생명은 계속 신호 를 보내게 된다.

아플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다른 음식은 생각도 안 나는데 꼭 먹고 싶은

것, 먹으면 살 것 같은 음식. 그걸 먹으 면 기운이 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 를 털고 일어나기도 한다. 그때 먹는 팔 죽 한 그릇, 동치미한 사발은 잊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지닌 기(氣)를 취하는 것이다. 먹 는 것이 피와 살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몸을 만든다. 생명은 살려고 태어났고, 살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연의 이 치다.

아이를 잉태하면 입맛이 드라마틱하 게 변한다. 생전 먹지 않던 것이 당기기 도 하고 평소 좋아했던 음식이 먹기 싫

어지기도 한다. 눈, 코, 입이 생길 때, 머 리털이 생길 때, 간이 자라고 신장이 완 성될 때, 그때마다 다른 기운, 다른 음식이 당긴다. 몸에 좋다는 것, 입산부한 데 좋다는 것을 먹으라고 해도 필요치 않으면 몸에서 거부해 버린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만으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식보다 먼저 생명력이 발동 한다.

다음부터 계속 입맛을 기준으로 어 떤 경력과 어떤 종류의 질병이 관계되 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 문의 : 301-922-9239

건강 칼럼

안면 부위에 발생하는 신경통

52세 여성환자가 한쪽 얼굴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필자를 보러왔다. 환자는 내원 약 2달 전부터 오른쪽 얼굴 부위에 칼로 찌 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통증은 수시로 하루 수 회에서 수 십 회 이상 생기는데 그때마다 수초에서 길게 는 수분에 걸쳐 아픔이 지속된다고 하였 다. 특히 음식물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 에 통증이 유발되며, 차가운 공기에 노출 될 때도 통증이 생긴다고 한다. 다른 사람 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순간 전기가 통하 듯 찌릿한 감각이 생길 때도 있었다.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위해 뇌와 뇌혈관에 대한 촬영을 시행해야 한다. 본 환자의 경우도 뇌 자기공명 및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검 사결과 어떠한 이차적 원인들을 찾을 수 는 없었다.

환자의 치료로는 먼저 약물치료가 시행 되었으며 다량해도 소량의 약물로도 환자 의 통증이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었다. 보통 삼차신경통은 완치가 가능한 신경통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외과적인 미세혈관 감압술이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 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술을 고려하기전에 보통 먼저 약물치 료를 시행해보며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 을 경우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차신 경통의 통증은 흔히 아이를 낳는 고통보 다도 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 아픔의 정도 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하지만 그 치료 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으므로, 삼차신경통이 의심된다면 주저 할 것 없이 조기에 신경내과 전문의를 찾 아보아야 한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본 환자의 증상은 신경통의 일종으로 뇌 에서 나오는 열 두 쌍의 뇌신경 가운데 하나 인, 얼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 신경이라는 다섯 번째 뇌신경의 문제이다. 삼차신경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가지가 세 개가 있다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보통 두번째와 세번째 가지가 잘 침범되어, 그 분포 영역인 뺨이나 아래턱 등을 따라 나 타나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삼차신경통"이라고 한다.

삼차신경통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특별 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 삼차신경 통과 특정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이차성 삼차신경통으로 나눈다. 연구에 의하면 전체 환자의 약 5-8%의 경우 삼차신경이 나오는 부위와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 즉 뇌종양, 뇌동맥 류, 다발성 경화증, 외상 등과 같은 이차성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삼차신경통이 의심되는 경우 먼 저 위와 같은 구조적 원인을 감별해내기

시니어

고혈압 관리, 눈건강, 피부 미용에 좋아

마켓에 가면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여름 과일 수박은 언 제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여름이면 원두막에 모여 수박을 먹었다. 그저 더워서 시원해지 려고 먹었지만 이것이 알고보면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퍼푸드였다. 수박에는 다른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에서 찾을 수 없는 일부 영양소를 포함해 나이가 들수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양소가 풍부하다 는 연구가 있다.

1. 혈압을 낮춘다

아미노산인 L-시트룰린은 혈관을 좋은 상태로 유지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1년에 수박과 시트룰린이 심 장 대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비교했다. 8개의 논문에서 혈압을 조사했는데 이중 7 개는 수박 과육, 주스 또는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이 혈 압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혈 액이 흐르도록 확장하고 뻣뻣하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유연한 혈관이 되는 것을 돕는다. 고혈압 관리에도 도 움이 된다. 약간의 칼륨을 제공하여 나트륨 과다로 인 한 혈압 상승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2. 피부가 더 젊어 보이도록 돕는다

수박에는 토마토를 붉게 만드는 식물 화합물인 리코 펜이 풍부하다.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를 보호할 수 있다. 리코펜은 신체 내부와 피부 모두에 이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리코펜으로 만든 자외선 차 단제를 구입할 수도 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토마 토를 물질의 최고의 식품 공급원으로 간주했다. 그러 나 루비색 수박은 생토마토보다 40% 더 많은 양을 제 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눈을 보호한다

당근과 마찬가지로 수박은 노화 관련 황반 변성 및 백내장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리코펜: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황반변성 위험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



수박이 피부에 좋은 영양소인 리코펜을 토마토 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 눈건강과 고혈압 예방에 좋다.

(넷닷컴 copilot 생성)

구에 따르면 백내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영양 저널에 발표된 2022년 연구에서 5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데이터를 조사결과, 루 테인과 제아잔틴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 건강에 중요하다.

4. 식습관 개선

수박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과일의 92% 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H2O 덕분에 두 컵 분량의 칼 로리는 90칼로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수많은 영양소의 풍성한 부분을 제공한다. 식단에 수 박을 추가하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다.

영양 저널에 발표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수박을 먹 은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한 식단을 갖고 있다. 건강 에 해로운 지방을 덜 섭취했으며 섬유질, 마그네슘, 칼 륨, 비타민 A 및 C와 같은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했다. 리코펜과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제가 더 많다.

장병희 기자

1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헤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9%	0.9%	13.9%	42.9%	2.3%	0.9%
매우물음	양요	노화사막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Sciatica
좌골신경통

영치
포리뼈

엄지
척추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뻠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뒤꿈치

발바닥 통증

뒤로 퍼기
힘들다

75°
30°

구부러기
힘들다

힘이 없어
잡지 못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헤민한의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전화: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의원 권진열

“코미디도 로맨스도 되죠” 이제는 믿고 보는 한선화

“연기로 재미를 드릴 수만 있다면 망가짐 정도는 감내할 수 있죠.”

배우 한선화(33)가 제대로 물을 만났다. 31일 개봉하는 코미디 영화 ‘파일럿’에서 파일럿인 오빠(조정석)를 여자로 변신시키는 뷰티 유튜버 한정미가 되어 여름 극장가 흥행 대전에 뛰어들었다.

드라마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지난 달 12일부터 방영중인 JTBC 수목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에선 전직 조폭 큰형님(엄태구)과 사랑에 빠진 키즈 유튜버 고은하 역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한선화가 로맨틱 코미디물에서 주연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선화는 출세작 ‘술꾼 도시 여자들’(이하 ‘술도녀’) 시즌1·2(티빙, 2021~23)의 4차원 요가 강사 역할 이후 친근하고 코믹한 이미지로 재조명됐다. 지난해 신동엽의 유튜버 ‘짠한형’ 출연 영상은 7개월간 775만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2009년 걸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예능에서 밝은 캐릭터로 활약해온 그가 최근엔 ‘하이텐션’ ‘사회생활 만렙’ 등 수식어와 함께 제2의 전성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삼정동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제 솔직한 모습을

영화·드라마 오가며 제2의 전성기

조정석과 호흡 맞춘 ‘파일럿’ 개봉 JTBC ‘놀아주는 여자’ 로코 첫 주연 유튜브 시작, 단편영화 제작도 참여 “기회 왔을 때 최선 다하니 또 오네요”

좋아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KBS2, 2013)으로 연기 데뷔한 한선화는 2016년 시크릿을 탈퇴한 뒤 배우 활동에 전념했다. 2021년 독립영화 ‘영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강릉’(2021), ‘창밖은 겨울’(2022), ‘교토에서 온 편지’(2023) 등으로 연기 보폭을 넓혀왔다. ‘파일럿’은 지난해 여름 개봉작 ‘달짝지근해:7510’을 잇는 그의 두 번째 코미디 영화다.

영화 ‘파일럿’에서 그와 호흡을 맞춘 조정석은 “왜 이제야 만났냐는 생각이 들 만큼, 텐션과 에너지가 좋았다”고 한선화를 칭찬했다. 정작 한선화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연기가 제일 어렵다”고 털어놨다.

“첫 촬영이 마트 장면이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어색해서 조정석 선배님한테 도와 달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스스로 부족한 걸 느낄 때는 감독님, 동료 배우들한테 잘 물어보는 편

이에요.”

타고난 끼를 발산하는 듯하지만, 그는 의외로 현장에서 알아주는 노력파다. ‘술도녀’ 때 상대역 김지석은 한 예능에서 그를 두고 “캐릭터를 맛깔나게 잘 살리는데 다 노력이다. 애드립도 연습하고 준비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선화는 “그때 그때 떠오르는 것을 대본에 적고 그리기도 한다”면서 “비슷한 장면의 영화·드라마를 찾아보며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했다.

“2년 전 ‘파일럿’ 촬영할 땐 잘하고 싶은 욕심에 다 내려놓고 코믹 연기에 몰두했죠. 개봉 전 기술시사로 보니, 제가 봐도 웃기고 민망하더군요. 저 진짜 열심히 망가지지 않았나요?”

그는 ‘파일럿’ 첫 관람 후 후대전화에 “코미디 장르에 충실했다. 적재적소에 내가 잘 쓰였다”는 감상평을 메모해줬다고 한다.

“밝은 작품이 잇따라 들어온 건 이런 저를 보고 싶으니까 찾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밝은 연기를)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고 다른 작품과 인물로 또 다시 평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도녀’ 이전 그는 드라마 ‘신의 선물-14일’(SBS, 2014)의 사기꾼, ‘자체 발광 오피스’(MBC, 2017)의 막무가내 회사원, ‘학교 2017’(KBS2, 2017)의 거



배우 한선화가 JTBC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의 키즈 유튜버 역(오른쪽에) 이어 31일 개봉하는 영화 ‘파일럿’에서 오빠(조정석)의 여장을 돕는 뷰티 유튜버 역할을 맡았다. ‘파일럿’에선 사랑스러움을 벗고 소탈한 코믹 연기에 나섰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JTBC]

침없는 순경 등 다채로운 조·단역을 거치며 배우로서 차근차근 성장했다. 아이돌 출신이 흔히 겪는 연기 혹평을 비켜간 이유다.

‘술도녀’로 인기 상승가를 누릴 때 독립영화에 출연한 것도 스크린 연기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기회를 찾아 나선 결과였다.

지난 24일 다방면의 전문가를 만나는 유튜브 채널 ‘궁금한선화’를 시작한 한선화는 올 하반기 신인감독 발굴

을 지원하는 단편영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를 공모, 여름 중 촬영을 완료해 다음달 말부터 국제지하철영화제 등에서 상영하는 ‘E-CUT 프로젝트’다.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고 믿는다”며 “작품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몰입했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원정기자**

“넌 또 출근해 퇴근은 없어”... 재해석한 오르페우스, 묘하게 공감 가네

사랑·운명 다룬 뮤지컬 하데스타운 지하세계 이야기 현대적으로 각색 하데스에 착취당하는 노동자 그려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개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냥개가 아니야. 그놈은 으르렁대고 물기나 하겠지. 정말 두려운 개는 머릿속에서 울부짖는 개란다. 그 울부짖음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머릿속을 뒤엎기게 하지.”

오르페우스는 지하 세계에서 아내 에우리디케를 구한 뒤 지상으로 올라가려 한다. 저승의 신 하데스가 그들을 돌려보내며 내건 조건은 한 가지. 지상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길을 떠나는

오르페우스에게 짧은 당부를 남긴다. 머릿속에서 울부짖는 개, ‘의심’을 조심하라고.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샤프테시어터에서 개막한 뮤지컬 ‘하데스타운’은 사랑과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죽은 아내를 찾아 지하로 내려가 아름다운 리라 연주로 신들을 설득하고 구출에 성공하지만 마지막 순간 뒤를 돌아보고 마는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했다.

지상과 극명히 대비되는 지하 세계의 연출이 흥미롭다. 오르페우스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넘버 ‘기다려줘’를 부르며 지하로 향할 때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지상의 빛을 표현하듯 천장의

조명들이 전자 운동을 하며 허공을 가른다. 오르페우스가 지하 세계 ‘하데스타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세상 만물이 그의 노래에 감동해 저승문이 사방으로 열리면서 무대가 넓어지고, 그 사이로 조명이 강렬하게 비추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뉴올리언스 재즈와 포크 록을 결합한 37곡의 넘버가 귀를 즐겁게 한다. 트럼본·첼로·바이올린·피아노·드럼 등으로 구성된 밴드가 무대 위에서 라이브 연주를 펼친다. 오르페우스가 지하로 떠나며 에우리디케를 향해 부르는 ‘기다려줘’, 에우리디케를 돌려 보내지 않으려 하는 하데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서사시’ 등이 하이라이트.

하데스타운의 통치자 하데스는 악덕 자본가로 그려진다. 하데스타운의 노동자들은 영혼을 담보로 노예 계약을 맺고 지하 광산에서 착취당한다. 그 작업장을 묘사한 ‘저 아래 하데스타운’은 “넌 또 출근해 또 출근해 퇴근은 없어 우린” “그문 너머로 들어가 영혼을 팔아버렸으니까” “많은 영혼이 죽어아만 녹슨 기계를 돌리지” 등의 가사로 현대인의 공감을 자아낸다.

음악의 완성도는 이미 정평이 났다. 작품은 2019년 토니 어워드 뮤지컬 관련 15개 부문 중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최우수작품상·연출상·음악상·편곡상·조명상·무대디자인상 등 8개 부문을 휩쓸었다. 2020년에는 그레

미어워드에서 최고 뮤지컬 앨범상을 받았다.

이번 재연에는 초연 무대(2021)에 섰던 조항균·박강현이 오르페우스 역에 캐스팅됐고 그룹 ‘멜로망스’ 출신 김민석이 새롭게 합류했다. 오르페우스에게 지하 세계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최정원·최재림·강홍석이 연기한다. 매력적인 저음으로 무대를 휘어잡는 지하의 신 하데스 역에는 지현준·양준모·김우형이 발탁됐다.

인터파크 관람평점은 10점 만점에 9.7이다. “한국 뮤지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악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 “조명 연출이 훌륭하다”는 평이 눈에 띈다. **홍지유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룸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칼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세트 훈련 한국, 경기장 훈련 프랑스 이겼다

남녀 동반 단체전 3연패 양궁 진천선수촌에 세트 세위 훈련 실제 경기장 훈련 개최국 격파

한국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에서 남녀 동반 3연패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양궁협회의 물 샅 틈 없는 완벽 지원이 있었다.

대한양궁협회는 선수들보다 훨씬 일찍 올림픽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선수들이 최적의 몸 상태에서 메달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경기 일정과 장소 등 모든 부분을 체크했다.

양궁협회는 이번 대회 경기 일정이 2020 도쿄 올림픽 때와 크게 달라진 점에 주목했다. 도쿄 대회는 랭킹 라운드 바로 다음날부터 3일 연속으로 혼성 단체전과 여자, 남자 단체전이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엔 랭킹 라운드를 치르고서 3일 뒤인 28일야 여자 단체전이 첫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되고 29일 남자 단체전이 이어 열렸다. 양궁은 랭킹 라운드에서 각 세부종



양궁 경기가 열리는 레쟁발리드 본머 진천선수촌에 만든 세트에서 훈련하는 여자 대표팀(왼쪽)과 센강에서 부는 바람에 대비해 남한강변에서 훈련한 남자 양궁 대표팀(오른쪽).



경기장 출입구에서 사대, 미디어와 만나는 인터뷰 공간까지 가는 동선도 실제와 동일하게 만들었다.

목 대진이 정해진다. 상대가 확정되면 선수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높아진다. 양궁협회는 회장사인 현대자동차의 도움을 받아 선수들이 레쟁발리드 공식 훈련장보다 편한 마음으로 기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훈련장을 마련했다.

프랑스 근교 일드프랑스에 위치한 140년 전통의 종합 스포츠클럽 '스타

드 프랑쥬'를 대회 기간 통째로 빌렸다. 회원제 클럽인 이곳은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곳여서 집중력도 높일 수 있었다.

유난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특별 훈련'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도 진행됐다. 진천선수촌에 레쟁발리드 경기장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세트'를 설치했다. 간판, 대형 전광판

등 구조물을 대회 상징색까지 반영해 세트 경기장에 구현해냈다.

경기장 출입구에서 사대, 미디어와 만나는 인터뷰 공간까지 가는 동선도 실제와 동일하게 만들었다.

장내 아나운서 코멘트, 관중의 환호성, 소음 역시 프랑스어와 영어로 틀어 현장감을 높였다.

이곳에서 대표팀은 자체 연습경기

를 진행하며 '파리 적응력'을 키워나갔다. 남자 단체전 결승 상대는 공교롭게도 개최국 프랑스였다.

'진짜 레쟁발리드'에서 수도 없이 연습한 프랑스를 '가짜 레쟁발리드'에서 훈련한 태극궁사들이 격파했다.

홍승진 대표팀 총감독은 "선수들이 실제 경기장을 미리 경험한 덕에 환경 적응력은 높이고 심리적 부담감은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센강변에 있는 레쟁발리드의 까다로운 강바람에도 대비했다. 센강에서 레쟁발리드 경기장까지 거리는 약 200~300m다. 양궁협회는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훈련장을 마련해 6월 2일부터 사흘간 훈련을 진행했다.

29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전북 현대 홈 경기에서 소음 적응 훈련도 했다. 관중들은 훈련을 돕기 위해 응원단의 북소리에 맞춰 손뼉을 치고 일부러 야유도 퍼부으며 태극궁사들의 훈련을 도왔다.

한국 감독 황당 경질... 인도 양궁 4점 쏘고 광탈

파리 도착하자 "돌아와라" 여자 단체전 첫 경기 탈락

인도 대표팀을 이끌고 2024 파리올림픽에 나선 백웅기(63) 총감독을 프랑스 현지에서 '황당 경질'한 인도 양궁 대표팀이 여자 양궁 단체전 첫 경기에서 탈락했다.

인도 여자 양궁대표팀은 27일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8강전에서 네덜란드에 0-6(51-52, 49-54, 48-53)으로 대패했다.

1세트는 1점 차 패배였지만, 2세트에서는 6점을 두 번이나 쏘며 졌다. 3세트는 완전히 흔들렸다. 첫발에서 4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7점 차로 패배했다. 백 감독의 지휘 없이 첫 경기

나섰던 인도 대표팀은 이날 세트 점수를 1점도 따내지 못하며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백 감독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코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한국에 안겼다.

2022년부터 인도 대표팀을 이끌던 백 감독은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경기

장-선수촌 출입 신분증인 AD 카드 발급을 기다리던 중 인도올림픽위원회(IOA)로부터 "대표팀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다"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경질 통보'였다. 백 감독과 인도양궁협회의 계약 기간은 8월 30일까지다.

경질 이유는 더 황당했다. IOA는 양궁대표팀 코치진에게 할당된 AD 카드가 4장뿐인데, 파리에 코치 5명이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백 감독을 현

장 코치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감독은 당시 "IOA가 부실하고 성급한 행정을 했다"며 분노했다. 그는 "난 파리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을 훈련하는 계약을 했으나 중요한 시점에 감독직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왜 굳이 돈을 들여 한국인 감독을 선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살아난 김하성, 다시 멀티히트

4경기 중 3경기 2안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 김하성(28)이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하며 타율 0.230대를 회복했다.

김하성은 28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앳 캠퍼인 야드에서 열

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방문경기에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 1도루로 맹활약했다.

김하성의 타율은 0.229에서 0.232로 상승했다. 김하성이 타율 0.230대를 찍은 건 4월 27일 필라델피아 필리



9회초야나 안타를 치고 달리는 김하성. [로이터/USA투데이스포츠]

스전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김하성은 0-0으로 맞선 3회초 첫 타석부터 출루에 성공했다. 선두 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볼티모어 선발 알베르트 수아레스를 상대로 볼넷을 얻었다. 볼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에서 연거푸 날아온 바깥쪽 낮은 유인구를 잘 잡았다.

김하성은 후속타자 카일 히가시오 카 타석 때 2루 도루까지 성공했다. 그는 이 도루로 올 시즌 20도루를 채웠

다. 첫 안타는 팀이 0-6으로 뒤지던 5회말 공격 때 나왔다.

김하성은 무사 1,3루에서 수아레스의 몸쪽 컷패스트볼을 끌어당겨 1타점 좌전 적시타를 때렸다.

김하성은 9회초 무사 1루 기회에서 우완 볼펜 예니에르 카노와 10구까지 가는 풀카운트 접전 끝에 낮은 싱킹 패스트볼을 공략해 3루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6-8로 패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ealthy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찰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치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a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판타지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7월
구
인
광
고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판료가 1개월 \$20 유로 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 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판과 서비스 해드립니다. 생활안내 광고를 애용해 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원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 자세한 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종언 어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사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가능.
410-961-3012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엘리킷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유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킷시티
410-926-3200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엘리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 MD 아룬델힐 사피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각·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MD 락빌 홀푸드 근처. 118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마루. 7월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모,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프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 571-294-0057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금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버지니아 지역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 심원섭 회계법인에서 일할 회계직원 구합니다.

(1) Manager/5-7yrs experience. CPA Required. (2) Sr. Accountant /3-5yrs experience. (3) Admin-Excel, Data Entry and Bilingual skills
Compensation: Salary + Benefits
msim@michaelsimcpa.com

애난델. 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 하실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인근 지역
▶ 이력서 joshuah0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마켓 분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 근무지: 승원 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문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 Quickbook/excel 경험필수
-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 좋은 인성과 성실함
-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징'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드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중앙일보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
트타임 캐슈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제과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스킨
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다가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다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매케닉, 준매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 3012

기타 구인/구직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종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리요. 연락처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종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 화2, 유포(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방 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뒷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단독주택 \$ 524,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Ground/Split Level, NO HOA, 0.25 Ac
(1층에 방2, 화1 시니어 거주 편리)



1층 콘도 \$ 234,000
방2, 화 2 / 콘도피 \$350
상가, 병원, 그로서리등 교통 편리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oug: Hello.
 더그: 여보세요.
 Kevin: Hi Doug, it's Kevin.
 케빈: 안녕하세요, 저 케빈이에요.
 Doug: Oh hi Kevin, What's up?
 더그: 어 잘 있었나. 웬 일이지?
 Kevin: Doug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lend me some money.
 케빈: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Doug: How much do you need?

더그: 얼마나 필요한데?
 Kevin: \$200. I got a great deal on a saxophone that I can't pass up.
 케빈: 200달러요. 거절할 수 없을만큼 좋은 가격에 색소폰을 살 수 있게 됐어요.
 Doug: And you're \$200 short?
 더그: 그런데 200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야?
 Kevin: Yes. You know I'm good for it, I can pay you back in two weeks.
 케빈: 네. 제가 신용있는 것 아시잖아요. 2주 후면 갚을

수 있어요.
 Doug: Sure. Come over and I'll write you a check for it.
 더그: 그래. 우리 집에 오면 수표를 써줄게.
 Kevin: Thanks so much Doug. This is a great saxophone and it's so cheap.
 케빈: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정말 좋은 색소폰인데 너무 싸요.
기억할만한 표현
 ▶ a great deal: 좋은 가격

"You paid only \$20 for that jacket?! That's a great deal!" (그 재킷을 20달러 썼다고요? 좋은 가격이에요.)
 ▶ (one) can't pass up (on something): 거절할 수 없는 기회
 "Mary makes great desserts. I can't pass up on her chocolate cakes." (메리는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죠. 전 메리의 초콜릿 케이크를 거절하지 못해요.)
 ▶ (an amount of money) short: 돈이 ~만큼 모자르다
 "I'd like to buy that computer but I'm \$100 short." (저도 저 컴퓨터를 사고 싶는데 100달러가 모자릅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 초목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불모의 토지. ~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생태취페리/어린왕자) (5) 새싹이 파랗게 돌아오는 봄철.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짧은 나이. ~은 아름다워라 (6) 이기고 있다가 형세가 뒤바뀌어 짐 (7) 몹시 어리석은 사람. 옛날부터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을 두고 ~이라고 했다 (8) 짐승을 잡아서 받은 피 (9) 돌로 만든 방아. 소나 말이 끌어 돌려서 곡식을 찧고 뺏는다 (11)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13)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15) 자기가 차지하는 몫. 지금 저 친구가 키르고 있는 애완견은 전에 내 ~였다네 (16) 상대편에 잡혀 두는 사람이나 물건. 인질 (17) 짝으로 지붕을 인 집 (18) 창고나 부두에서, 집을 갈고리로 찍어 당겨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를 치다 (21) 씨를 흙집. 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버릇, 모습, 전통에서 벗어나게 함. ~은 못한다 (24) 말의 입에 물리는, 쇠로 된 물건 (25) 지하수가 석회암 지대를 용해하여 생긴 동굴 (27) 물건을 넣어 들고 다니죠 (28) 지표

면에 비치는 햇볕의 양 (29) 산삼 캐기가 직업 (30) 음악의 성인. ~ 베토벤 (31) 달여서 마시는 한약
세로열쇠
 (2)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 (3)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네모반듯한 연 (4) 돌맹이를 멀리 날려서 던지는 짓 (5)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름.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옴 (8) 자신의 출신 학교를 먼저 졸업한 사람 (10)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감 (12) 단단한 물건이나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14) 자처럼 쓰이는 막대기로 때리는 불기. ~ 맞겠다(자기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경우) (15) 시집갈 나이의 여자 (18) 개울 상류의 돌 밑에 살며 뒷걸음질을 잘 한다 (19) 크게 외쳐 꾸짖는 한마디의 소리 (20) 어머니의 젓 (22) 소의 무릎뼈와 거기에 붙은 고깃덩이를 넣어서 푹 끓인 국 (23) 돌이나 흙 따위로 높이 막아 쌓은 언덕. 제방 (25) 용량에 따라 세금이나 이용 요금을 매기는 제도. 쓰레기 ~ (26) 같은 중심을 가지며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

스도쿠

	9		3		7	8		6
	8	1			6			4
	7				8			
			2			4		
7	4			6		3		9
				8				1
				7	2	5		4
3	2				5			7
5		7		9		1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8	1	5	6	4	7	9	5
7	9	6	5	1	8	4	2	3
4	3	5	2	7	9	6	1	8
1	5	9	4	8	7	2	3	6
6	2	3	1	9	5	8	4	7
8	7	4	6	3	2	9	5	1
5	6	2	8	4	1	3	7	9
3	4	7	9	5	6	1	8	2
9	1	8	7	2	3	5	6	4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영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영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구인

아침유경험 양식국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델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식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차콜온돌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형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라 살매
최종살매
 Up to 40%
 핫상품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삼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 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FBS solutions
 5분만에 100마일 충전가능 = 300kW

한인최초 미국 굴지의 EV충전소 제조 회사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 할수있습니다
 문의: Jay Park Jaepark2000@yahoo.com
213-605-1122, 714-822-7150
 Sales Agent 모집중 (선착순 인원제한)
 개인땅이나 건물주 연락 바랍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새 상가나 새 아파트에는 EV 충전소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EV 충전소 설치의 장점

1. 내땅에서 전기 충전소 설치하면 24시간 수입 창출
2. 트래픽이 많아지고 기다리는 동안 수입 창출 3
3.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높은 Grant 를 받을 확률이 좋다
4. FBS 를 통해 설치 하면 공사비가 타 회사 대비 70% 절약 할수있다

12541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지구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Chicago
 Los Angeles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Little River Tnpk.

중양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